

우리문화

문화탐방 | 김해 가야세계문화축전

특집 |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교육에 달렸다

한국문화 | 한지! 아름다움을 넘어 고부가 상품으로...

가을사냥 | 바스락, 바스락 마중나온 산사의 늦가을

2005 _ 9.10

VOL. 178

전국문화원연합회



가을 햇살에 몸을 맡긴 채 누워 있는 빨간 고추들이 고향을 그리게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올해 말까지 무료 개방



10월 28일 국립중앙박물관이 개관했다. 세계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계획된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방된 용산가죽공원에 건립되어진다. 도심 속 여유와 함께 한민족의 문화

와 역사를 총체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새로운 전시기법으로 쉬운 이해와 깊은 감동을 전하게 되며, 동시에 권위 있는 학술적 연구체계와 교육의 장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관일인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2005년 말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관람질서 유지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 매표소에서 무료관람권을 발급받아 입장해야 한다.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 경남 통영 청소년수련관서 열려

제5차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남 통영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렸다.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보다 활성화시키자는 계획아래 열린 이번 연수는 지역문화의 영역별 워크숍 및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관련기사 69면>

직지심경 등 전시, 한국문화 알려 유비쿼터스 북 등 현지언론 '찬사'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한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닷새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도서전에서 우리나라는 주빈국 도서전시의 차원을 넘어 한국 문화를 유럽에 심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23일 막을 내린 2005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 한국은 지금까지 주빈국 행사를 가졌던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책임 직지심경을 비롯 휴대폰으로 주문하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책을 받아볼 수 있는 유비쿼터스 북은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의 찬사를 받았다.

이번 도서전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국가로 초대받은 우리나라는 내외신 언론을 상대로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공들여 조성한 주빈국관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한국문화 알리기 행보에 나섰다.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문화관광부, 저작물 이용허락표시 채택

문화관광부는 2005년 10월 21일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를 채택하기로 했다.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표시를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저작자가 제시한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물의 이용 촉진과 장기적으로는 문화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문화관광부 알림마당은 문화부의 공지

사항이나 브리핑 등을 대외에 알리는 창구로 이번에 '비영리 목적의 사용, 개작(改作)금지' 표시를 채택함으로써 누구나 그 목적 하에서 별도의 허락 없이 알림마당내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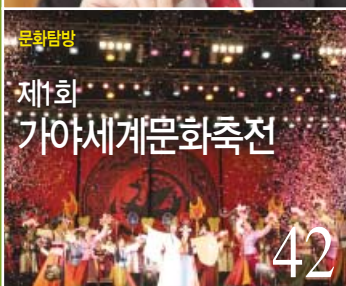
문화부는 앞으로 부내 다른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을 검토하고 각종 포털 등에도 동 표시 적용을 권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원장 4명 옥관·화관 문화훈장 서훈

문화관광부는 10월 13일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자와 '제37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및 '2005 오늘의 젊은예술가상' 수상자를 선정·발표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남도 지회장 조남식(趙南植·전 영광문화원장)과 김태원 영천문화원

고문이 옥관문화훈장을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조규돈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이 화관문화훈장을 서훈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3시 전북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문화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관련기사 7면>



특 집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교육에 달렸다

16

Contents

September · October 2005 _ Vol 178

4	인터뷰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주춧돌”
8	인터뷰	문화원은 오랜 ‘지역문화 지킴이’
12	문화컬럼	‘지역문화’는 공동체 발전의 ‘열쇠’
16	특집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교육에 달렸다
33	시 한편	서래봉 구름 한 떼
34	화보	가을꽃
36	문화논단	사라지는 황실문화, 복원해야 할 황실문화
42	문화탐방	제1회 가야세계문화축전
48	한국문화	한지! 아름다움을 넘어 고부가 상품으로...
54	지역따라 노래따라	유행가 제목 속에 담은 ‘대전’
58	문화정보	미리보는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62	문화원 이야기	동작문화원, 동대문문화원
68	문화뉴스	2005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 등
76	사랑방	우리의 전통주를 찾아서
78	가을사냥	바스락, 바스락 마중나온 산사의 늦가을
82	책꽂이	내성의 맥 등
88	성과 로맨스	“사랑한다면 나이를 묻지마라” (下)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예술의
주춧돌”

김병익 초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75년인가요? 그때도 문학과지성사 초대 대표이사
사로 취임하셨는데 이번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이 되셨네요.

(웃음) 글쎄요. 문학과지성사는 초대 대표이사라
기 보다는 창업자에 더 가깝죠. 한국문화예술위원
회는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란
이름으로 쌓아온 바탕위에서 민간 주도로 문화예
술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그동안 문화
예술계를 연결시켰던 인적·물적 네트워크나 시
스템을 승계하는 것이니까 완전히 창업하는 것이
라고는 볼 수 없죠.

**그래도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한국문화예술위
원회로 새롭게 출범한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
봅니다. 두달여 일해 본 소감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기존의 관 주도 시스템에서 민 주도 시
스템으로 바뀌어나가는 리모델링 사업이라 할 수 있
어요. 그런데 이게 더 쉽지 않네요. 아예 처음부터
창업하는 것이 더 쉬울 거예요. 지금의 리모델링
은 사람, 공간, 예산을 그대로 두고 관에서 민으로
옮기는 일이라 특별히 눈에 띄는 일이 없어 실감
나지 않는 경우가 많더군요. 지난 두 달여의 기간
은 새로운 체제로 옮겨가는 진통기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114에 전화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물어봤더
니 전화번호가 등록되어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래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말하니까 전화번
호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직 바뀌 나가는 중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위원회
영문 명칭이 'arko'로 바뀐지 오래됐는데 아직까
지도 과거의 'kca'가 쓰인 서류를 들고 다니고
있어 혼내긴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변화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듯 합니다.

**아직까지 관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에 익숙해 있
어서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여러모로 극복해야 할 점도 많을 것으
로 보이는데...**

최근에 신진작가 공모와 관련해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모를 어떻게 하느냐를 논의하기
전에 신진작가라는 용어부터 도마에 올랐어요. 관
주도 정권 시절에 쓰던 신진작가라는 용어를 그대
로 쓰면 새로 출범한 민간주도의 위원회가 무슨
의미 있겠느냐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바탕 토론이
벌어졌어요. 누구는 "지원자 나이를 35세 이하로
한정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누구는 "나이와
신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냥 젊은작가라고
명칭을 붙이자"고 제안하기도 했죠. 이렇게 갑론
을박하는데 장장 2시간이 소요됐어요. 이는 어떻
게 보면 민주주의의 약점이라 생각해요. 기존의
관주도 체제에서라면 몇분이면 끝날일인데 말이
죠.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비효율성인 것이죠. 하
지만 자기 발언이 채택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각자
가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가 따르는 합의안을 도출
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강력한 힘을 가진다고
봅니다. 이같이 민간주도 방식은 운영과정상에서
조율하기가 매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
과적으로 전체가 합의를 이루기만 하면 강점을 갖
게 되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
까?**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무처가 행정을 맡
고 있구요. 또 다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 모두 11
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문학, 시각예술, 무용, 연극, 음악, 전통예술, 다원
등 장르별 7개 소위원회에 '남북교류' '해외교류'
'재원개발' 등 기능별 3개 위원회를 추가해 10개
소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 소위원회
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가 삼각형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소위원회 가운데 자원개발 위원회가 눈에 띕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출범하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문화예술 위원회 소속 11명 위원 모두가 문화예술계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경제인·법조인·사회과학자 등 비문화예술계 인사도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문화예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나아가 대 사회적 발언권을 폭넓게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문화예술 위원들이 하지 못하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뜻에서 10월 말 경제·회계·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예술 지원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해 전까지만 해도 250억원 정도 였는데 지금은 1000억원이나 됩니다. 작년 8월에 복권 기금이 500억원 투입됐고 기금 이자가 250억원, 그리고 기금 원금에서 250억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1000억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기금을 해체함에 따라 해가 갈수록 원금이 점점 줄어들어 바닥이 날지도 모를 일인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 어떻게 재원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냐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실 생 각이신지요?

지금 저희가 받는 복권 기금은 총리실 산하 복권위

원회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지원 대상이 문화예술진흥 분야로만 되어 있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권기금 지원 대상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시하는게 1차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문예진흥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적 유대를 강화하는게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영국은 복권 수입의 15%를 문화예술에 지원하고 있고 미국은 문화예술분야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기증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예술에 대한 상속·기증 풍토가 진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한 산업화에 대한 견해는?

우리가 주목하는 분야는 기초 예술과 순수 예술입니다. 그리고 이 미 영화나 게임과 같은 대중 예술과 산업 예술은 주무 기관이 있잖아요. 저희는 '시장 실패적 운명'이란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나 하면 사회적으로 매우 가치가 있으나 시장에서 상품 경쟁력이 없

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예술을 말합니다. 이런 예술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기금 지원에 있어서도 공평과 효율의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소액 다건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이란 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수의 불평 불만이 생길거라 예상됩니다. 특히나 심사 평가는 그 자체가 사실상 매우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식으로 숫자들의

측정도구로 계량화 하기도 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의 신뢰도 같아요. 그리고 일단 민간 주도의 예술 지원으로 옮겨갔다면 믿어주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심사위원의 양식이나 안목을 믿어줄 때 더 큰 공평과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가 열악한데 지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이미 지방에도 문화예술재단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들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하며 상호 협력하에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이처럼 지역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피해가며 문화예술 지원의 효율을 기할 생각입니다. 또 수혜단체가 일부 예산을 자체 조달한다는 조건하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는 매칭펀드 시스템도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문화회관들 중에는 놀고 있는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프로그램을 매칭해 주는 방법등을 통해 활성화를 꾀할 생각입니다.

이전에 지방문화원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서류를 내보이며) 지방문화원 예산이 8천만원 대에서 5억원 대로 대폭 늘어난 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누가 한줄 아십니까. (웃음) 제가 했습니다. 당시 83년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 동아일보 선배인 이 진희 문화공보부 장관을 만날 일이 있었죠.(당시 김병익 위원장은 문학과지성사 대표로 재직중이었다) 사석에서 문화 발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나라 문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려면 그 무엇보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문화예술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키워야 한다고 얘기했죠. 한국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발전시키려면 도서·전사회·음악회·글쓰기 강좌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지방문화원을 활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3년 당시 까지만 해도 지방문화

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총8천8백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84년에는 무려 7배나 신장한 5억7천9백만원으로 신장하게 된다.)

지방문화원은 언제 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동아일보에서 문화부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취재 차원에서 잘 알고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인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 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어요. 유년 시절 친구의 아버지가 대전문화원 초대 원장으로 계셨드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곳에 가서 책을 빌려보곤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서 문화원을 관심있게 보아온 거죠.

마지막으로 지방문화원 가족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에는 문예회관과 같은 덩치 큰 하드웨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곳을 무슨 콘텐츠로 채우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행히) 지방에는 문화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문화원은 규모는 작지만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으로 역할해 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어느 문화예술 기관 단체 보다)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영향력을 지녀왔고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같은 역량을 지닌 문화원이 주축이 되어 지방문예회관등 문화예술단체와 제휴해 지역문화예술을 상생의 길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하 | 프린랜서 사진작가

김병익 위원장 프로필

- 동아일보 기자(65~75)
- 문학과 지성사 대표(75~2000)
- 보관문화훈장(2003)
- 문학평론가
- 인하대 국문과 초빙교수
- 문학과 지성사 상임고문
- 토지문화재단 이사

문화원은 오랜 ‘지역문화 지킴이’ “젊은 세대와 함께 춤추라”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지역문화 전문가로 문화예술위원회에 위촉됐다. 축하드립니다. 소감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문화를 대표해 여러명의 위원이 위촉되기를 은근히 기대했었습니다. 인구대비로 한다면 지역 전체에 수도권의 두 배는 살고 있으니 지역위원이 여러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의외의 결과라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그만큼 의무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같이 위촉되신 위원들을 만나 보니 그분들의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저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으셔서 안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역문화를 잘 아는 문화예술위원으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요?

우선 지방문예진흥기금을 지금 보다는 조금 나은 여건으로 만들어 드려야 할게 아닌가 합니다. 해마다 우리 문화예술위원회가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문예진흥기금에 기금을 직접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보통 2억에서 3억 사이의 돈이 배분됩니다. 지역이나 저희 위원회나 문예진흥기금은 이자로 주는 것인데 각 지역의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각 지역의 문예진흥기금이 크게 위축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에 기금을 나눠주는 제도는 199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한푼도 늘지 않고 2005년 까지 그대로 왔거든요. 그래서 내심 결심한 것은 이걸 좀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한 건당 평균 지원 액은 1000 만원 이상 인데 지역문예진흥기금의 한 건당 평균지원액은 200 만원 수준입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감지덕지 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지역문화 현장의 사정이 이러니 조금이라도 이걸 부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전체 지원금 중에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조금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전체 지원금 중에서 지역문화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총체적으로 지역문화의 아이템도 좋아지고 위력도 있어지고 비중도 커진다는 것일텐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흥원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지역문화 특별사업들도 계속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요. 이제 곧 지역문화 소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의제 등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역시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함께 전략과 설득을 통해 조금씩 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지역문화 종사자 분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생각하는 지역문화의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사회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걸림돌은 역시 문화패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역이든 수도권이든 문화패권 문제는 진보·보수의 문제와 예술계의 장르별 패권 문제, 지역과 수도권의 지정학적 중앙집중 현상의 문제로 나뉘는데 농도는 다소 덜하다 하여도 지역문화 역시 이러한 개념을 벗어나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 문화라고 한다면 이렇게 모두 지역성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될 텐데 오히려 지역은 판이 작아 사소한 걸로 나뉘고 갈리고... 그러는 경우가 다반사죠. 이게 심해지면 촌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저 역시 지역문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패권의 문

제에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는 듯 합니다. 저 역시 반성합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인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점, 개선점을 하나씩만 들어 주십시오.

제게 문화원은 강렬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원 입구에 붙어있는 공익광고 같은 포스터나 공모성 사진들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기억 속의 관점으로는 현 시대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전국에 변변한 예술단체 하나 찾기 힘들고 문화관련 시민단체와 같은 것이 있을 여건도 못되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는 있어야 하고 설혹, 다양한 예술 단체가 있다 하여도 소중한 향토사를 비롯한 지역문화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을 들라 하면 문화원을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선책이라고 하는 점을 물어오셨는데 글썄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지적할 수 있겠어요? 현장 활동가들께서는 무엇이 자신 있는 부분인지 혹은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지 이미 잘 아시고 제실 거라 저는 생각 합니다. 굳이 말하라면 조금은 오래 된 듯한 느낌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아니겠어요? 젊은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내고 논의의 틀, 특 히공론장 형성 같은 것이 필요 하겠다 싶습니다.

시군구에 배정된 지방문화원 예산이 잘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다니요? 문화원진흥법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근거하여 편성 방식이나 이런것들이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예전에 저는 문화원이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10년전쯤만 해도 문화원은 예산을 국비 지방비 대비 일대일로 잡잖아요? 거기다가 경상운영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단체였고요. 저는 예술단체 사람인데, 그 당시 저희단

체는 정상운영비는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저는 사무처장 입장이니까 사무처를 꾸려갈려면 참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기는 한데, 그리고 사업비도 주로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는데 문예진흥기금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참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하거든요. 반드시 지원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복권 사놓고 기다리는 심정이었고요.

다만, 얼마간의 예산을 미리 9월 정도쯤 신청하고 해마다 조금씩 올려주기도 하는 시 군의 예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문화원의 지원 방식이 참 부러웠지요. 물론 자치제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생겨난 지역축제에 비해 문화원의 예산이 비약적으로 늘지 않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지역의 예술단체라고 여건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금은 문화원도 예총·민예총으로 대표되는 지역예술단체와의 예산 비교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이야 말로 문화예술계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우선은 문화에 대한 비중이 커져야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될 수 있지 않겠어요?



234개 시군구의 문화는 한국문화의 일부인데, 국가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드라이브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새 예술정책을 보면 '문화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실현'이라는 어귀가 있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가단위의 문화정책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얼마나 정책우위를 지니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기초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는

꼭 필요한 일이거니와 그 자체로 옳은 일이라 제가 따로 중언(重言)할 필요조차 없는 일일테구요. 다만, 어떻게 정책을 현실화 할지의 실현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디선가 올해 안으로 발표하게 될 문화현장의 기본이념에도 문화민주주의에 근간하는 문화권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야기를 들을 적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문화민주주의라는데 뭘겠어요? 결국은 문화로 동등해지고 공평해지는 문제라고 볼 때 결국, 이런 개념도 지역문화의 가치제고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바꿔 말해 지역문화를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다양한 정책은 이미 시도는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과 비교하여 확실히 지역문화의 비중은 커지고 있고 중요도 역시 꼭 필요한 영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지역문화의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정도가 너무 미약한 이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는 립서비스와 같은 허울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데에도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도의 사각지대는 많고 이를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책임져야할 자치단체의 문화적 마인드는 형편없이 어려운 지경이고요.

또 하나는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 입장에서의 균형발전 논리의 문제도 그렇구요. 군단위를 우선 순위에 넣고 이야기 하면 오히려 수도권대 지역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파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광역 중대 도시와 군 단위나 읍면단위 같이 진짜 기본을 이루는 자치단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전 다른 자리에서 수도권과 지역 광역 중대도시와, 지역광

역도시와 군 단위 문화격차를 ‘많음과 적음’ 그리고 ‘있음과 없음’으로 표현한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 드려 수도권과 지역광역 중 대도시까지의 문화 집중 문제는 군단위로 내려오면 몇 개 군을 제외하고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점점 촌은 사람 살 데가 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거 도청소재지 급 이상의 지방광역도시는 오히려 자기 광역시도의 군 단위 같은 기초자치단체를 볼모잡고 있는 입장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는 비단 문화부만의 문제라고만 국한할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첨예한 사회현상이자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일테구요. 이거 말이 길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역문화나 지역예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 영산의 영산줄당기기는 제가 본 행사중 단연 훌륭한 전승행사였습니다. 물론 제가 전 지역을 세세히 다 살펴본 입장은 아니니 ‘제가 본 것중에’ 라는 토를 달아야 할 텐데 그 동네 분들께서는 ‘줄쟁기기’라고 발음을 하시더라고요. 역동성, 공동체성 그리고, 저야 마당극 하는 사람이니까 연희성 등등 정말 나무랄데 없는 좋은 행사였어요. 아직도 이런 농촌공동체성이 그대로

간직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행사가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지역문화 일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문화 종사자로 같은 입장일 텐데요. 누가 알아주는 일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긍지를 느낄만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테고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지역은 전인적인 역할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기획하고 혼자 추진하고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행사 끝나면 혼자 결산 챙겨야 하는 고된 작업이지요. 딱히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명감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해서 훨씬 행복해질 사람이 문화예술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는 빨리 더 행복한 일을 찾아가야 옳은 이치일 것입니다. 하는 동안 최선을 다 하는 게 실무자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런 일의 실천 단위에 있는 사람이지 사람을 부리는 입장에서 서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글 _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사진 _ 김석화 | 프리랜서 사진작가

민간 문화예술 지원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 8월 출범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후신으로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문화예술 정책을 이끌어낸다. 특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책의 일방적인 수혜자였던 문화예술인들이 정책의 입안자이자 수행자로 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

위원회는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사무처장 심재찬 △위원=한명희(전 서울시립대 문리대 교수), 김언호(한길사 대표), 김정현(민예총 이사), 김현자(국립무용단 예술감독), 강준혁(문화기획자), 박신의(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정완규(중앙대 음악대학 교수), 박종관(충북민예총 사무처장), 전효관(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대표)

지역문화는 공동체 발전의 ‘열쇠’

이 글은 지난 9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열린 생활문화실천운동 간담회에서 초청강사로 참석한 문용린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장의 강의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어느 국가든 그 나라 수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대학이나 직장생활은 서울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을 황폐화 시키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고등교육을 마친 사람들이 귀향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삶의 뿌리를 내린다.

또 우리는 연고주의, 학벌, 지역주의에 편승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기 때문에 가장 앞서서 선도해야 할 정치가 낙후상태에 있다. 마치 ‘어항속의 금붕어가 어항 밖의 TV 보는 격’이다. 어항에 담긴 물이 주는지 느끼지 느끼지도 못하면서 외부에만 관심을 갖는 형태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가 당면과제임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연고주의에 의한 나와 우리만 챙기는 가족주의가 건전한 문화를 망쳐버렸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버는 물신세상이 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면만 확산시켰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선현들의 의식 근저에는 건전한 윤리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해 왔지만 오늘의 왜곡된 가족주의·자본주의는 사회질서를 붕괴시킨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려면 지역사회가 문화를 앞세워 공



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하다.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익이 잘되어야 개인도 잘 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처럼 지역단위에서는 성공을 거두었으나 국가 단위로 클로즈업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였고, 제2의 건국운동도 실패한 것처럼 국가가 중심이 되어 국민들의 의식을 이끄는 정책은 중국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이처럼 국가발전 위주의 정책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된 것처럼 단위 지역사회 발전이 선결과제이다.

유럽의 르네상스 운동은 종교·정치·문화 부흥운동으로서 암울했던 당시의 사회가 질곡을 벗어난 계기가 되었다. 그 시작은 이태리 플로렌스 지역의 메디치가 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당시 각 지역 영주는 개인 군대를 보유하였으나 메디치가문은 사병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을 육성해 나갔다. 그때의 인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거장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세계변화의 물꼬를 튼 사건으로서 바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사례이다.

일본도 메이지유신으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 발단은 규수의 하기 지역 출신 사무라이 요시다 쇼이가 일본과 수교를 하기 위하여 온 미국 군함을 보고 일본도 근대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그 군함에 승선 미국의 문물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 사람이 26세 때 규수 하기지역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에 1년간에 걸쳐 이 지역 청소년들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메이지 유신 주역 30명 가운데 이토오 히로부미 등 13명이 요시다 쇼이의 제자들이었다. 미국의 경우에도 손님에게 바가지 씌우기로



유명했던 택시문제를 비롯해서 범죄도시의 대명사로 여겼던 뉴욕이 강력한 경찰력을 바탕으로 범죄예방에 앞장 선 시장의 부단한 노력으로 90년대부터 범죄율이 낮아지고 있다.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취임 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요인을 전문연구기관에서는 종교와 기업가, 그리고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들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건국정신인 청교도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빌게이츠 같은 미국의 기업가들이 재산을 노동자와 사회에 환원시키는 문제와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었고 사회 갈등도 완화되었다.

요즘 우리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은 필란드의 클러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은 문화이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려면 지방문화원이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의 교양과 품위를 높이고 주민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여 주는 것은 행정 관료들이 할 수 없다.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일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몫이다.

문용린 | 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은 문화이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해 가려면 지방문화원이 나서야 한다. 지역 주민의 교양과 품위를 높이고 주민 사이의 연대의식을 높여 주는 것은 행정 관료들이 할 수 없다. 어린이나 어른 모두에게 예절을 가르치는 일 등 지역사회 발전은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몫이다.



“가족문화개선에 국가도 나서야”

가족의 개념은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나를 도와주는 곳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가족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다. 가정도 정성들여 가꿀 때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것이다.

바뀌고 있다. 떨어져 사는 분기가족, 자발적 무자녀 가족,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영역이었던 가족은 구조적인 가난대물림, 세습적인 장애대물림 등으로 사회계층이동 내지 신분상승이 불가능했다.

우리 사회는 20~30년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사회가 변하면 가정도 변한다. 요즘 3, 4대가 함께 사는 집은 드물다. 가족가치관에 엄청난 변화가 있어 적응해야 할 부분이 있다. 먼저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부부는 가정의 기둥이자 핵이며 모델인 것이다.

가정에는 온기가 있어야 한다. 부부중심 문화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나친 가부장적 문화, 자식에 대한 집착현상 등이 부부관계의 역기능을 키우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관계가 회복하지 않으면 노후생활도 원만하지 못하다.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부관계의 화목이 중요하다. 2003년도 결혼률 대비 이혼율이 54.3%로 심각한 수준이다. 21세기 한국사회의 가족정의도 바뀌고 있다. 양부모 가족 중심에서 한 쪽 부모, 미혼 부모 가족도 포함하는 추세이다. 덧붙여 혈연가족에서 입양 가족으로

이제껏 노인문제를 자식에게만 책임지게 하였으나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풍토 개선이 필요하며 효도관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장남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자식 또는 딸도 모셔야 하며 한 집안이 아닌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부사이에도 성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가 성적인 매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식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표시 또는 사과표시도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결국 가정문제는 건강한 사회를 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문제 예방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공적인 영역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껏 노인문제를 자식에게만 책임지게 하였으나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풍토개선이 필요하며 효도관도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장남이 모시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 자식 또는 딸도 모셔야 하며 한 집안이 아닌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부부사이에도 성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다. 따라서 부부가 성적인 매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자식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감사표시 또는 사과표시도

강학중 | 가정경영연구소장

지역문화 발전

지역문화 교육에 달렸다

기획 강민철 | 우리문화 기획팀장

»» 01 공무원을 위한 문화·행사 교육 절실

»» 02 지역문화지도사 어떻게 활동하나?

»» 03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은 '주민교육'



Special Issue

공무원을 위한

Special Issue 01

문화·행사 교육 절실

주라기 공원 영화 한편이 자동차 150만대를 수출하는 경제적 효과와 버금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례이다. 최근 드라마 촬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재미를 본 자치단체도 많다. '해신'이나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드라마 촬영은 해당 자치단체에 많은 관광객의 유입을 성공케 했고, 이로 인한 지역특산물 판매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익산시와 부여군이 SBS의 서동요의 촬영지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이처럼 문화가 새로운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식기반 사업으로 문화산업을 선정하였다.

드라마 촬영지 유치경쟁 등 문화관심 급격 신장

산업자원부는 2010년까지의 장기산업비전에 의하면 자동차, 조선, 가전, 석유화학 등의 기존 산업의 성장률은 3%에서 6% 정도라고 보았으나 영화는 18%, 음반, 15%, 방송 25%, 게임 33%로 급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한국7대 전통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3.3%인 반면 4대 엔터테인먼트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2.8%로 예측하여 창의적 문화산업 사회가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통계는 이제까지 문화가 주로 소비재의 역할을 해왔다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

'해신'이나 '불멸의 이순신'과 같은 드라마 촬영은 해당 자치단체에 많은 관광객의 유입을 성공케 했고, 이로 인한 지역특산물 판매에도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많은 예산을 들여 드라마 촬영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익산시와 부여군이 SBS의 서동요의 촬영지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것은 이러한 연유에 기인한다.



대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지역 문화자원에 대한 사업화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에서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지역축제이다. 전남 함평의 나비축제는 지역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었다. 함평군은 나비축제를 통해 함평이 생태의 지역임을 전국에 알렸으며, 축제기간에 약 300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지역축제의 인프라 구축과 더

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지역축제의 성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애향심과 자신감일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자치단체는 지역축제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이미지 각인과 더불어 관광객의 유입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축제 예산에 비해 효과 내지 못하는 지자체도 많아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만 하고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더 많다. 마음만 급하고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지역축제를 단순한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인식하여 대충 대충 해치우는 식의 행사로 끝내는 것이다. 또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나 자치단체 공무원도 굳이 애써 잘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적당하게 큰 탈없이 행사가 끝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벤트 업자에 외주를 주지만, 이벤트 업자도 비슷한 생각으로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지역축제에 관련된 담당자들의 이러한 생각으로는 지역축제가 성공하기 어렵다. 이러한 식의 행사는 지속되더라도 지역문화 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지역주민들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축제는 초기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단계를 벗어나면서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치른 자치단체와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지역축제를 치르기 위한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의 구축, 문화인력의 구축, 장비의 누적 등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똑같은 축제 예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축제의 다른 부문으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면서 축제가 대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관광

객을 유치 할 수 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격차는 지역축제이외의 전반적인 지역문화와 연관해서 나타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 공무원 중심 지역문화인력 양성 프로그램 필요

이와 같은 큰 흐름 속에 현재 자치단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여러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의 하나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다.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문화시설 운영과 지역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익산시와 협의하에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의전과정을 마련해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약 60여명의 익산시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시간은 1주일에 35시간. 주요 과목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행사기획안 작성, 의전행사, 행사운영, 행사기획, 지역문화, 행사홍보, 지역축제, 지속가능한 문화프로그램개발 등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론보다는 주로 실무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이 이루어졌다. 공무원들의 교육 만족도는 대단히 높았고 이러한 교육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평가였다.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전 분야에 걸친 공무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여 교육에 대한 필요성보다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 관리 차원으로 인식하는 공무원들도 있어 교육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이런 생각으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 익산시와의 협의아래 원광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가 주관하는 행사의 전과정을 마련,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약 60여명의 익산시 공무원을 교육했다. 교육시간은 1주일에 35시간. 주요 과목으로는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마케팅, 행사기획안 작성, 의전행사, 행사운영, 행사기획, 지역문화, 행사홍보, 지역축제, 지속가능한 문화프로그램개발 등이었다.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교육시간에는 공무원들이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발표가 이루어질까 하는 염려를 많이 했다. 자신들의 발표를 매우 꺼리는 분위기였으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발표를 시키면 결석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매우 많았다. 교육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괜히 이런 저런 걱정으로 강행을 해야 하니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대상이 주로 6, 7급의 중견간부였고, 한 두사람은 발표를 강력하게 원한다는 주변 이야기도 있어 발표를 강행했다.

처음의 예상과는 달리 교육생들은 많은 준비를 했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발표에 성의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주로 자기 부서에서 행사가 끝난 것이나 기획하고 있는 행사에 대한 결과물이나 기획서를 가지고 발표를 했다. 다만 준비부족으로 이들 발표에 대한 수정이나 충분한 코멘트가 이루어지지 못해 못내 아쉬웠다. 발표할 제목이나 내용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발표가 이루어졌다면,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사전에 조직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다. 또한 지역축제를 담당한 강사의 좋은 입담으로 다른 지역에서 기획한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익산으로 옮겨 행사를 해보자는 의견도 많았다. 공무원 교육생들과 담당강사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시간이 촉박하고 전혀 예상 밖의 일어서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육을 좀 더 짜임새있는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회성 행사 치르기에 급급하지 말고 장기적 역량 확보해야



공무원들은 해당 지역사회의 중추집단이다. 이들 집단이 결집하여 협력하면 많은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의 틀 속에서 무사안일에 젖어 있는 공무원들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현장으로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한 문화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 교육은 절대 필요하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정신을 가진 전문가들로 공무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 급한 마음으로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 한 번 행사 “짱”하고 잘 치르고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계속해서 잘 치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역은 계속해서 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지역문화를 발전시키자고 하면서 지역 문화 전문가는 찾아 보기 어려운 현상이 지속되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와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토론하고 교육하면서 지역문화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먼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문화행사에 관심있는 공무원에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바람직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먼저 전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문화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좁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관심이 있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사전에 교육대상자들을 선정하여 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한다. 교육생들이 발표하고 직접 참여하는 학습이 되도록 한다. 그래서 발표에 대한 코멘트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보다 발전하기 위한 기획은 어떤 것들이 있고, 행사 운영전략은 무엇이 있는지를 전문가들과 토론하면서 학습하도록 한다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 당시 지역문화 현장이나 행사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하도록 한다. 무엇이 잘 되었는지 잘 못되었는지를 평가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도록 하면 많은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어느 한 부서의 행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획서를 만들어 보고 이 기획서를 바탕으로 교육생들을 중심으로 행사진행을 해보도록 하면 큰 학습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글 _ 서희석 | 원광대학교 교수
2002 전주세계소리축제 평가단장
2003 익산 서동축제 운영위원장
2004 전북행정학회장

바람직한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먼저 전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문화나 행사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좁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관심이 있어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Special Issue 02

지역문화지도사

어떻게 활동하나?

21세기 들어 더욱 중요해지는 지역문화

오늘 들어 우리 사회는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았다. 은행, 관공서와 대기업은 물론이고 초·중·고교도 주5일 근무제를 월 1회에서 월2회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국민들은 일주일 중 기존 일요일에 그 전 하루를 더해 연 이틀 이어지는 여가 시간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일요일 중심의 여가 시간과는 다른 종류의 여가 소비 품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지친 몸을 달래며 게으르게 보내는 시간마저도 하루를 넘기게 되면 대개 지겨워지게 마련인 것이 현대인이다. 여행, 등산, 낚시, 식도락, 스포츠 관람, 문화예술 관람 등등 무수한 여가 활동 내용이 있어 왔지만, 이제 이와는 다른 차원의 내용으로 새로운 문화시대를 가꾸어야 할 때이다.

여가 시간의 증가와 관련,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회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의 인구변동 추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했으며, 2022년 이후는 아예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있어 일상의 시간 그 자체로 무한한 여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여가 시간을 위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여가 활동 품목 개발은 필연적이다. 노인복지란 21세기 세계의 중요한 사회적 과제인바, 노인층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가 활동 품목의 개발과 제공은 말 그대로 21세기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주5일 근무제와 인구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여가 시간을 증가시키고 결국은 그 여가 시간을 채울 다양한 내용의 품목을 요구하고 있는 이 현상은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이미 우리 사회는 21세기 들어, 시행 십수 년에 이른 지방자치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전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웰빙 붐에 힘입어 각 지역마다 다채로운 형태의 문화 활동을 벌여 지역민들의 문화 소비 욕구에 호응해 왔다. 지역마다 건설된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학관 등이 지역민의 문화 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더불어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회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다. 통계청의 인구변동 추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돌입했다. 2022년 이후는 아예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추세이며, 문화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등으로 지역문화의 중심축으로 인식된 지방문화원이나, 소도시 지역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문화의 집 등에서 지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있는 문화 활동 내용을 구체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이러한 여가 시간 활용 품목이나 개인 문화 활동 내용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그 안에 삶의 질과 관련된다는 인식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상의 차원에서 느끼고 즐기고 체험하려 하고 있고, 그 대상 품목은 실로 다양하고 무한할 뿐만 아니라 그 질적인 면에서도 더 가치 있는 것, 정신적으로 더 고양된 어떤 것을 추구한다. 그러한 삶의 질과 관련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질 높은 삶을 위해 다양하고 무한한 문화 활동 품목을 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의 그러한 실제적인 문화 활동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과거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가 전하는 정보를 수용하면서 즐기고 생각하던 것에서 이제 자신의 일터와 쉼터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고 행하는 문화 체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가꾸고 변화해 가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그 문화 체험의 현장은 바로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다.

21세기를 이룸하여 문화의 시대라 하고, 학자들은 이때 나타나는 문화의 특징을 세계성, 민족성, 지역성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문화의 특징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지역민들이고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지역문화다.

시설·단체 많으나 이용 저조해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민들의 문화 수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은 전 지역적으로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복지를 제공하는 지역문화단체의 증설이 이를 가장 잘 대변해 준다. 우리나라 전국 각 지역에는 지방문화원을 비롯해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도서관, 박물관, 문학관, 미술관, 테마파크 등의 문화시설이나, 구민회관,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평생교육관 등의 주민복지,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또 사설 단체에서 운영하는 영화관, 공연장, 테마파크 등도 지역문화의 창출과 수요를 담당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체와 시설은 지역별로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역민들은 각자의 주거공간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이러한 시설과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역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근자에 들어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고 통합복권기금 등에서 이들 문화시설이나 단체에 특별 지원금을 주어 더욱 다양한 문화





복지대책의 시행이 가능해졌다. 각 지역마다 점점 다양해지는 문화소비 형태에 걸맞는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들도 눈에 띄게 활발히 개발 시행되고 있는 중이고, 이 중 어떤 지방은 지자체와 지역민이 함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

리고도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문화에 대한 인식 부족, 예산 불균형과 지역인력 인프라 취약,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관료사회의 관행 탓으로 시대 변화가 요구하는 만큼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장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행정, 재정, 시설, 인력면의 두드러진 불균형은 그대로 문화정책과 행사 집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당한 예산 배정에도 불구하고 문화 운용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로 지역문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응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그동안 시설 지원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 지역에서 집행하는 많은 예산이 주로 공공시설 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 개발사업에 쓰이고 있다.

문화의 민주화나 문화복지 등 21세기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역문화 패턴은 건물이나 시설의 신축 등 외적인 것보다 그 기관의 운영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개발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구현된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시설에 투자되고, 상대적으로 지역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나 프로그램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은 부족하다.

그 결과 시설이나 단체는 많은데, 많은 지역의 공공 문화시설의 경우 이용률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행사참여율 역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각 문화시설이 다양하고 수준 있는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지 못한 데 있다고 조사되고 있다. 지역민의 문화향수를 확대하고, 문화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중요하므로, 이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전문인력의 필요성 대두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역발전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바야흐로 지역문화 활성화의 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각종 문화시설이 증가하였고, 문화향수권이 증대되었으며, 지역축제로 대표되는 지역문화의 산업화도 촉진되었다. 그러나 전문성 결여와 예산 부족, 제도적인 역할의 미부여 등으로 ‘시설은 있으나 프로그램이 없는’ 편익주의와 전시 행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회관의 낮은 가동률 등에서 입증되었다. 또한 지역마다 시행되고 있는 지역축제의 경우도 그 수효와 종류가 날로

지역민의 문화향수를 확대하고, 문화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기획이 중요하므로, 이 기획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연례적인 행사로 마감되면서 예산 낭비 등 부정적인 결과만 남기는 경우가 많다.

문화시설과 단체의 증설과 운영 예산 확보 등으로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를 증대시켜 주고, 계층의 차별 없는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이제 보다 전문적인 안목으로 지역문화를 선도할 문화 전문인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지역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지도사’란 국가자격증 제도 마련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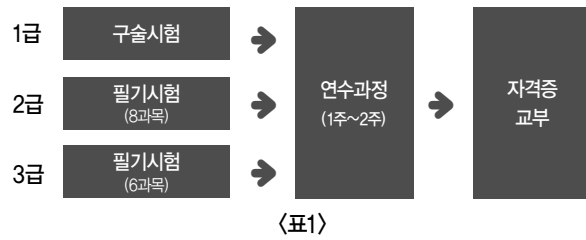
지역문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주체가 될 문화 전문인력을 이룸하여 ‘지역문화지도사’라 명명할 수 있겠다. 풀이하자면 지역문화지도사는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 조사하고 이를 개발 확대하는 각종 제도의 운용과 그 행사 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기획 자문 교육 홍보 집필 섭외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궁극적으로는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복지와 문화 민주화에 기여하게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문화지도사는 어떤 방법으로 양성해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약하게 할 것인가. 현재 전국 각 지역에는 지역문화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그들 중 지방문화원이나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기관에서 종사하는 정규직도 있다. 그러나 상당수는 전문가다운 업무 배경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전문가다운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지역문화지도사라는 이름을 가지더라도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면 무의미하다. 이 점에서 지역문화지도사 국가 자격증 제도를 제안한다. 즉, 국가에서 자격을 갖춘 이를 선발 교육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해서 명실공히 지역문화지도사로 활동하도록 하자는 뜻이다.

지역문화지도사 자격증은 검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만 수여하게 되고 그 자격증에 등급을 주어 등급에 맞게 기능할 수 있게 한다. 문화단체의 수장이나 간부급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의 박사급 인력 등에게는 1급, 다년간 문화 행사 기획 경력을 쌓았거나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등에게는 2급, 대학에서 인문 관련 학점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거나 문화예술 창작 활동 경력자 등에게는 3급에 해당하는 시험을 각각 응시하게 하고 합격자에게는 등급별로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강의를 수강하게 한다. 이러한 전 과정을 통과한 이에게 자격증을 주게 된다.

필기시험은 문화사, 지역사회론 등이 공통과목, 대중문화론 등이 전문과목이고 1급의 경우는 구술시험으로 검증하게 된다. 연수 과목은 지역문화개발론 등 9개 과목이 중심이 된다. 자격증 취득 절차를 도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문화지도사의 자격을 얻게 된 자격자는 전국 223개 지방문화원에 우선 배치되고, 기타 자치단체의 문화시설에서 정규직, 계약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표2 참조) 또 이들은 3년에 1회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규정해 둔다. 앞으로 지역문화지도사의 활동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21세기가 요구하는 문화시대를 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표2〉

배치	고용형태	업무	비고
지방문화원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명시한 업무	「지방문화원진흥법」(개정안)에 근거하여, 전국 223개 지방문화원에 정규직 1명 의무배치, 문화원의 업무와 규모에 따라 추가 총원
자치단체의 문화시설	계약직	기획 및 운영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고용
자치단체 문화행정요원	계약직	문화행정 전문요원 문화산업 전문요원 (지역축제 등)	각 지역적인 특성을 문화산업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문요원으로 활용
지역문화 예술진흥위원회	정규직 및 계약직	기획 및 운영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과 문화예술 회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
교육기관	비정규직	문화체험교사 (현장학습 진행)	토요학습 및 현장체험학습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총원
대기업	정규직 및 비정규직	사원 복지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생산성 향상과 애사심 증대를 위한 사원복지 프로그램 기획
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정규직 및 비정규직	각종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각급 대학의 평생교육원 및 백화점 등 교육·문화센터의 전문기획, 요원
문화유적 및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운영 및 관리	지역별 관광지,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상품성을 증대시킬 기획 및 운영요원
복지시설	정규직 및 비정규직	문화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층 중심 문화복지 기획 운영요원
문화산업체	정규직 및 비정규직	기획 및 상담직	공연 및 전시기획, 이벤트 업체 등 문화산업체의 전문인력



박덕규 | 소설가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은 '주민교육'

사람만이 희망이다.
사람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시인 박노해의 시 '다시'의 일부이다. 문화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므로 문화발전은 곧 사람에서 비롯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그 자신들이 지역문화발전의 주체인 동시에 대상이다.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생존양식이며 생활문화이기 때문이다. 지역현실과 동떨어진 문화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관념적 대상일 뿐이다.

지역문화발전은 전통문화의 전승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고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문화를 고상하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예술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지역문화를 보다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예전에는 주민들이 지역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과정의 주체였다. 주민들이 자기 마을의 특성에 맞게 문화를 창출하고 직접 연행의 주인공이 되고, 그 문화의 향을 향유하는 주체였다. 오늘날 전통문화는 해체되면서 일과 놀이가 분리



이렇게 다원화된 지역의 전통과 개성을 창조하는 지역문화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시민의 가치관, 생활의 식, 행동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돈과 물질만을 추구하던 생활방식에서 마음의 여유, 미의식, 인간다운 감정 등과 같은 가치세계 내지는 생활스타일로 바꾸어야 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될 수 없다.



되고 문화공간은 예술인들의 전유물이 되었고 주민들은 객이 되어 버렸다. 지역문화는 주민이 문화생산의 주체이자 유통, 소비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창출되어야 한다. 지역문화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일, 지역예술가를 지원하는 일, 문화행사를 늘리는 일 등 양적 팽창만을 추구해서는 안된다. 지역의 전통을 바로세우고 주민자치 문화를 창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예술로서 문화’, ‘역사로서 문화’가 아닌 ‘생활로서 문화’의 창출을 의미한다. 지역문화의 이념적 좌표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성을 높이고 존중하는 주민공동체문화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동체 문화와 생산문화를 핵심개념으로 삼되 전통을 바탕으로 다원성과 시민사회문화가 조화롭게 결합되도록 지역문화를 재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원화된 지역의 전통과 개성을 창조하는 지역문화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무엇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시민의 가치관, 생활의식, 행동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돈과 물질만을 추구하던 생활방식에서 마음의 여유, 미의식, 인간다운 감정 등과 같은 가치세계 내지는 생활스타일로 바꾸어야 한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지역이 문화적으로 될 수 없다. 지역문화발전에 교육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주민들 자신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하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문화전통의 진흥은 소수의 문화엘리트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행정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에 의해 만들어가는 일상생활 속의 드라마이다. 지역주민 모두가 일체가 되어 새로운 창조를 위해 매진해야 한다.

장성군, 10년동안 주민·공무원 대상 아카데미 운영

그러나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새로운 지역문화의 창조와 전승을 운위할 문화인도 주민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격히 노령화되고 여성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그나마 남아 있는 구성원들조차 지역정치 구도와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문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문화를 이끌어 갈 행정과 주

체인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들을 매개하는 지역문화인들의 저변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한 획일적인 지역개발업무나 단순한 인허가 업무에만 매달리게 됨으로서 지방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할 자발적인 기회 및 능력이 취약하다. 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와 보직변경의 가능성 때문에 지역문화 창출에는 열정과 관심이 멀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창의력과 열정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착실한 사업기획을 거쳐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주민과 공무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남 장성군(군수 김홍식)이 개설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성아카데미는 '21세기 장성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가진 이후 10년동안 매주 1차례씩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강사들을 초청해왔다. 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10년 동안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장성아카데미 교육은 공무원들이 선진 의식을 갖도록 했으며, 이를 밑거름으로 군은 민선자치 개막 이후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138개의 상과 92억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장성아카데미 초창기엔 의회나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교육이후 직원들의 업무처리 태도나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에서부터 변화가 일고 이것이 결국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과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로 이어지자 지역의 이미지가 달라지고 있다. 새로운 것을 듣고 배우는 것 자체가 지역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었다.

우선 주민과 공무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남 장성군(군수 김홍식)이 개설한 '21세기 장성아카데미'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장성아카데미는 '21세기 장성군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지난 95년 9월 15일 첫 강좌를 가진 이후 10년 동안 매주 1차례씩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강사들을 초청해왔다.

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10년 동안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자체 민간단체 동기부여자로 역할해야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가 진행되면서 지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선 개인의 지식 창출 및 확산 능력에 따라 지방의 경쟁력이 결정되고 이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즉 다리 하나 안 놓고 길 하나 텅 뚫더라도 공무원과 주민 교육을 잘하는 게 효과적이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모두 밑으로 빠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은 자란다. 그것이 교육의 힘이다.

주민교육은 일종의 사회교육이다. 사회일반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교육을 사회교육이라고 한다면 주민 교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사회교육이다.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소개 습득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교육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민교육은 현실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결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강조된다. 주민교육은 일반적으로 이론적이고 관념적이기 보다는 실천적, 구체적이다. 나이와 교육수준이 다양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교육이므로 강의식 교육보다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또 한번 해보게 하는 교육이 중시된다.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노력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성공요인의 하나이다. 문화사업이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꾸준히 진행시킬 수 있는 추진력 및 경영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며 이때 사업의 주체는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 안동은 매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다양한 지역전통문화자산과 탈춤축제를 연계함으로써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안동문화를 관광상

품화하는데 성공했다. 축제의 성공에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참여가 있었다.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자치단체는 예산의 관리와 집행, 축제장 정비, 축제기간동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며 지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민들은 전문가들이 아니며 오히려





다수의 소극적 참여자가 쉬우므로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행정정보의 공개 및 홍보, 다양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과의 신뢰구축 등으로 주민의 의식을 바꾸고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시민단체, 연구회, 소그룹 모임을 활성화하여 이들이 실행주체로 나서는 등 지역문화사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사업추진의 주체이기 보다는 동기부여자로 인식하고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민참여는 초기에는 개별적인 주민참여가 중심이될 수 있으나 점차 조직화, 기능화되어 주민단체나 조합을 결성한 후 지역경영사업의 기획, 상품화, 평가에 직접 참여했다. 지자체는 이들 민간 단체를 육성 및 지원하는 정책을 활성화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공한 사례에서는 돈과 자원이 없어도 '인재가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이 인재를 개발한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특히 젊은층의 지역내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명인이 있어야 명품이 나오고 명소로 발전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된 혁신의 주체, 내발적인 자립형 지방화가 필요하며, 그 출발은 지역의 인재 양성에 있다.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사회의 평균 수준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일시적으로 어떤 멋진 일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계몽하고 훈련하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공동의 경험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역문화발전의 지름길이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중심이된 혁신의 주체, 내발적인 자립형 지방화가 필요하며, 그 출발은 지역의 인재 양성에 있다.

지역발전이란 결국 지역사회의 평균 수준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일시적으로 어떤 멋진 일을 달성할 수는 있지만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평균 수준을 맞추지 않으면 안된다.

끊임없이 교육하고 계몽하고 훈련하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공동의 경험을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지역문화발전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내 각 분야별로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세력(CA: Changing Agent)”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내 각 분야에서 변화의 주도할 핵심 인물과 단체를 육성하고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 내고 역량을 키울 교육훈련을 마련, 외부의 전문 인력이 지역에 모이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 여건을 개선하고 행정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부존자원과 투자재원이 지역발전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자원과 재원이 풍부한 지역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인재가 지역을 개발하고 또한 지역이 인재를 개발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아이디어로 성공한 지역은 공통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해 강한 애착과 집념을 가진 추진력 있는 공무원이나 지도자가 존재했다.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이 소프트웨어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며 名人(사람)이 있어야 지역의 名品이 개발되고 결국 名所로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



강신겸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강신겸 박사는 서울대에서 환경조경학 석사를 마친 후 한양대에서 관광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역과 관광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연구 집필서로는 <그린투어리즘의 이론과 실제> <지역경제 새싹이 돋는다> 등이 있다.

서래봉 구름 한 떼

구름 한 떼가 식어가는 하늘을
지나가고 있었다

서래봉 정상에 떼 지어 가면서
모이고 모여
한패거리가 되었다

하늘을 덮을 듯 큰 무리가 되어
떠다니고 있었다

하늘에서 얻은 지식으로는
하늘에서만 쓰지
땅에서 나누어 쓰기는
힘에 부쳤다

지난 겨울
서래봉 구름 한 떼는
홍년같은 낫달의 모습으로

얼마간 남은 시간을 버리고
함께
노을의 원한을
횡단하고 있었다



이복응 | 군산문화원장 · 시인

79년 「시문학」으로 문단 데뷔,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국제펜클럽 이사,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장





가을꽃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밭, 이곳의 가을은 하얗습니다.



사라지는 황실문화, 복원해야 할 황실문화

백두의 정기를 이어받아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오늘에 이르는 한민족. 그러나 우리 민족은 20세기 벽두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불행을 겪었다. 세계 열강제국들의 거센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대한제국이 더 이상 버텨내지 못하고 이 나라 대문 열쇠를 그만 일제에 강탈당하고 만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 민족은 거의 반백년을 풍랑 속에 흔들리는 일엽편주가 되어 표류해 오다가, 설상가상으로 동족 간에 갈라져 이별해야 하는 또 한 번의 비

극마저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을 잃었다. 바로 오백여 년의 장구한 세월 간 이 민족을 이끌어 오던 역사와 민족의 구심점이었던 대한제국 황실이다.

필자는 지금 '사라지는 황실문화, 복원해야 할 황실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풀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에서 사라지는 황실문화는 무엇이며 복원해야 할 황실문화는 무엇일까. 첨단을 거듭하며 시시각각 변모하고 있는 지금, 주위로부터 갖은 수모와 치욕을

겪음은 물론이요, 사실마저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낱 과거 역사의 잔재로 전락해 가는 황실의 문화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대상인가.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는 적절한가. 아니 필요하긴 한 것인가. 더구나 망국의 한이 아직도 씻기지 않은 채 우리의 뇌리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제국의 주체였던 대한황실의 문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낯선 대상은 아닌지. 혹여 거부감마저 주진 않을런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 아직도 견지하지 않고 잔영처럼 깔려있는 과거 일부 식민사관에 의해 지배되어 오던 다수의 사고와 판단으로부터 탈피해서 그 이면의 진실을 진지하고 명석하게 사유할 때를 맞진 않았을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복원바람이 한창이다. 오랜 세월 간 어두운 땅 속으로 흐르던 청계천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어 마침내 복원된 청계천. 과거 우리 조상들이 먹 감고 빨래하던 그 모습 그대로는 아

니더라도, 오늘의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복원된 것만은 사실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그것을 더욱 잘 가꾸고 지켜 다가오는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일 터. 복원의 현장은 또 다른 데서도 쉽게 발견된다. 일제 강점기에는 대한제국의 맥을 끊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한민족의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짓누르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청사가 조선왕조 정궁인 경복궁의 광화문과 근정전 사이에 훗물스레 자리잡고 있다가 물러나고 지금은 본래 주인이었던 흥례문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다소 조야해 보이나 각 궁궐에서 상시 거행되는 수문장 교대식도 아쉬운 대로 복원되고 있다. 이 외에도 우리 주위에서는 조선왕실 가례 등 다양한 왕실문화 등이 각처에서 꾸준히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왕조의 궁궐에 제 모습을 찾아주기 위한 일련의 이런 움직임이나 왕실문화를 재현하는 다양한 행사 등은 이 시대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과거 역사의 혼과 그 유무형의 실체를 올바르게 복원, 계승하여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후손



• 황실문화를 재현하기 위해 한 참가자가 분장하고 있다.



들에게 제대로 정립된 정신문화 유산을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는 황실문화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대한황실의 고난과 파괴과정부터 짚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 최대 격동의 시기인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 강제로 외교권을 강탈당하고, 1910년에는 마침내 한일병탄으로 우리가 가진 전부를 잃었다. 그리고 1945년 8월, 광복이 되기까지 우리는 일제로부터 외적인 수탈은 물론이고 우리의 정통성과 정체성마저 수탈당했다. 그 처참한 역사현장의 중심에 대한제국의 황실과 궁궐이 위치한다. 대한황실의 황태자인 영친왕 이은은 일본에 볼모로 끌려가 일본황실의 여인과 강제 혼인을 하고, 그의 형님인 의친왕 이강은 일경들의 감시 속에 하루하루를 갇혀 살아야 했으며, 광무황제의 고명딸인 덕혜옹주는 일본 대마도주에게 시집을 가 형언할 수 없는 불행을 겪었다. 이 모두는 온 백성의 지주요 구심점

이던 대한황실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황실 근원의 정통성을 말살시키려는 일제의 간악하고도 치밀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창경궁은 하루아침에 동물원으로 전락했고, 경복궁엔 총독부 청사가 들어섰으며, 융희황제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창덕궁은 제 이름 놔두고 한낱 후원의 이름에 불과한 ‘비원’이란 이름으로까지 불리게 되었다. 이처럼 일제 강점기 동안 우리 민족은 내외적으로 술한 침략과 수탈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조선왕조의 궁궐과 황실문화에 대한 복원사업은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린 정통성을 되찾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움직임으로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황실문화라는 특정 문화를 넘어서, 억압과 상처로 물든 역사문화로부터는 물론이고 찬란하고 화려한 역사문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통해 과거의 나를 바로 찾고, 현재의 나를 인식하고, 나



아가서는 더 나은 미래를 창출시킬 수 있는 존재로서의 나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황실문화 복원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처럼 역사복원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현장에서 한 발 비켜서 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부끄럽기 그지없는 천태만상들이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의 자랑스런 왕실문화이자 세계의 문화유산이기도 한 종묘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된다. 종묘는 조선왕조의 왕과 비의 신위가 모셔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묘의 입구는 술판과 고성방가가 난무하며, 갖은 악취가 풍기고 있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통제하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일개 여염집에서도 신위를 모신 사당앞에선 그리 하지 않는다. 만일 누군가의 사당 앞에서 그런 추태를 벌였다가는 봉변을 당해도 여러 번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넘어 세계문화유

산으로도 지정된 그곳에서 그리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것인가. 결국, 종묘는 이제 대외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조선왕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동시에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문화유산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왕실문화의 보존실태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9월엔, 보물로 지정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 관리 소홀로 인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위로부터 눈총이 빗발쳤다. 이런 일은 또 있다. 조선 왕조 왕실의 묘역중 하나인 서삼릉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파괴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다. 과거 120만 평에 달하던 너른 묘역은 오래전부터 찢기고 잘려나가 골프장이 되고, 목장이 되어, 이제 남은 면적은 불과 7만 여 평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 술 더 떠, 최근엔 광무황제의 후궁이자 의친왕의 생모인 귀인 장씨의 묘가 주변에 있는 골프장의 증설계획으로 인해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는 소식마저 전해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왕실문화 유산은 절대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무분별한 골프장 증설은 분명한 문화유산 파괴이자 환경파괴행위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역사문화를 올바로 복원하려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왕실문화를 망기하거나 훼손하고 파괴하려는 부류가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왕실문화의 복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존하는 왕실문화와 그 유산을 보호 관리하는 일이 더욱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맞고 있다.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의 황실문화는 한 마디로 표류 중이다. 각 기관과 문화단체에서 황실의 문화를 재현하는 행사를 펼치고는 있지만 그 행사의 중심에 정작 황실의 주체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황실문화 관련한 행

사 중 황손이 직접 참여하는 가장 큰 행사들로는 종묘대제와 전주이씨의 시조에게 예를 올리는 전주 조경단대제 등이 있으며, 이 외에 사직대제를 비롯하여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능과 원에서 치러지는 산능제 등이 있다.

그러나 일련의 이런 행사들은 극히 몇몇 대제를 빼고 나면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행사는 거의 없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행사가 연중으로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따라서 앞으로 황실문화가 올바로 보존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실제 황실의 주체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생존해 있는 황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는 물론이고, 각 행사와 관련한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왕실문화는 겉도는 문화가 아닌 명실상부하게 온 시민들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대한제국 황세손 이구씨의 장례행렬에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마지막 황세손 가는 길을 지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 왕실이 현존하는 나라는 여럿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나라로 영국왕실을 꼽을 수 있다. 외국인들에게 영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나 물으면 그 첫 대답이 ‘영국왕실’ 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자원 면에서만 보더라도 영국왕실이 차지하고 있는 몫과 역할은 가히 가공할만하다. 런던의 버킹엄 궁전 앞은 언제 가 봐도 각국의 수많은 관광객 인파들로 북적인다.

그리고 그 앞에서 행해지는 근위병들의 교대식은 근엄함이 자연스럽게 배어난다. 그것은 왕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즐겨 찾는 런던 근교에 있는 윈저 성만 가보더라도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왕실문화를 한 눈에 체험할 수 있다. 결국 영국왕실은 영국의 상징인 동시에 영국에서 가장 큰 문화상품이기도 하다. 그래

서 일면 보면, 황실의 주체가 궁궐에 거주하지 않아 살아있는 궁궐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제 황실문화는 과거 황실에서만 존재했던 문화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황실문화는 단순한 궁궐 전각 등의 복원을 넘어서 일반인들이 함께 호흡하며 실생활에서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모든 이의 현실문화로 접목되어 계승, 발전돼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황손은 있으나 황실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현 상황에서 황실의 문화는 나와는 상관없는 별개의 문화로 영원히 표류하게 될 것이며, 머지않은 시점에 현대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미래의 후손들에게도 잊혀지는 문화로 남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황실문화의 일부인 제례문화, 궁중음식문화, 복식문화, 놀이문화 외에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보급할 황실문화들로는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를 더욱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몫으로 남는다.

그러므로 지난 7월에 타개한 이구 황태손의 양자로 입적한 이원 황사손(皇嗣孫)이 “모든 이들에게 황실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물론, 직접 황실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그 의지와 포부가 어느 시점에서 현실화 될 지 자못 기대된다.



이구용

컬럼니스트 · 우리황실사랑회 부위원장
경기 평택출신으로 영문학을 공부했다. 현재 저작권 수출입 에이전시인 (주)임프리카 코리아에서 상무이사로 근무 중이며, 컬럼니스트로서 신문, 방송언론을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출판문화와 도서에 대한 소개를 활발히 해오고 있다.

또한 번역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우리황실사랑회(<http://www.srkr.org>)’ 소속으로 대한황실의 위상과 권위회복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1화 가야세계문화축전

“500년 가야의
신비를 벗기다”

500년 가야의 문화를 축제로 되살린 가야세계문화축전이 16일간에 걸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기원 전후부터 562년까지 낙동강 하류에 근거지를 뒀던 고대국가 ‘가야’의 문화를 조명하는 취지로 대성동 고분군, 수로왕릉, 수릉원, 국립김해박물관, 봉황동 유적지 등 경남 김해의 가야 유적지 일원에서 열린 가야세계문화축전은 ‘오래된 미래-가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감케 했다.

가야 유적복원 사업의 완료에 때맞춰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가야세계문화축전은 30일 저녁 수릉원 특설무대에서의 길놀이 등 전야 및 개막행사로 막이 올랐다.

이번 축전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불’이었다.

주최측은 “가야문화는 당시 ‘불’에 기초한 최고수준의 하이테크인 철기문화와 토기·도자문화를 일구어 동북아 문물교류의 중심으로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불-가야의 밝은 지혜’라는 축제 컨셉에 맞춰 현대 빛 예술의 진수로 알려진 이탈리아 ‘루미나리에 설치전’과 ‘빛 설치작품 및 특별 조명이벤트’ 등으로 김해시는 ‘빛의 도시’로 변모했다. 축전테마공연인 ‘가락국기’도 눈여겨 볼 만한 행사였다. 가야국





의 시조인 김수로왕의 탄생과 건국,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인 허황옥과의 운명적 만남과 사랑 등을 그린 축전테마공연 ‘가락국기’는 우리의 고대음악과 현대음악, 인도음악 등이 혼합된 가무악 총체극으로 참여인원이 100명이 넘고, 제작비가 가야축전 총 예산의 10% 이상인 2억5천만원이 투입됐다.

이처럼 주최측이 심혈을 기울여온 만큼 그 웅장함 등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세계 유일의 현존 사원 무용극인 캄보디아 왕립 발레단의 ‘앙코르와트 궁중무용’, 2000년 이상 된 인도의 고전 무용극 ‘꾸디아팜’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무형유산 초청공연 등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여간해선 보기 어려운 공연들을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전통줄타기, 남해안별신굿, 고성오광대 판소리 등 중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 다양한 종류의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가야금 프로젝트가 열렸으며 또한 ‘가야금의 원형, 가야금의 현재형’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도 개최됐다.

이 외에도 가야와 교류했던 지역들의 세계무형유산 지정 공연단체들을 초청해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됐다.

이밖에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고대 제련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풀무질과 다듬질, 불피우기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야철기공방’이 재현됐고, 고분체험 등 가야생활체험마당, 과학체험마당, 김해줄다리기 등 다양한 참여·체험행사도 마련됐다.

김해시는 이번 축전을 개최함으로써 가야문화재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널리 알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한편 김해시를 전통문화도시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글 _ 김보라 기자

문화유적지

수로왕릉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적으로서 가락국 시조대왕의 능이며 남릉이라고도 한다.

수로왕은 서기 42년 음력 3월 3일 구지봉에 탄강하여 3월 15일에 즉위 함으로써 가락국을 건국했다. 서기 199년 3월 20일에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다. 서기 48년 인도 아유타국 공주인 허황옥을 왕비로 맞았으며 우리나라 김해김씨의 시조가 됐다. 왕릉의 외형은 원형 봉토분이고 봉분의 높이는 약5m로서 선조 13년 수축하고 인조 25년 능비를 세웠다. 비에는『가락국 수로왕능(駕洛國 首露王陵)』이라 각자(刻字)되어 있다.

김해의 상징적 문화유적으로 김해 김씨, 허씨, 인천 이씨의 시조이다. 수로왕은 알 중에서 맨 처음 나왔다 하여 "수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한다.

왕비로 맞은 허 황옥의 고향인 인도 아유타국 용왕을 표시하는 두 마리의 물고기가 채색된 신어문양의 남릉정문(納陵正門)을 지나 만나게 되는 원형 봉토분 외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 숙이게 하는 위엄을 느끼게 한다.

수로왕비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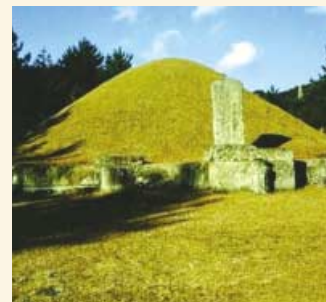
수로왕비는 원래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로 이름은 허황옥이





다. 수로왕 7년인 서기 48년에 16세의 나이로 배를 타고 가락국에 도착하여 왕비가 됐다. 서기 189년 별세.

왕비릉(王妃陵-국가사적 제 74호)의 송선각(신도비각)은 가락국 역사와 송선전사가 기록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



다.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열아홉 아들 중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인 허씨를 따르게 하여 김해 허씨 성이 유래되었고 그로 인해 김해 김씨와 허씨는 혼인이 금지되어 왔다. 그리고 허왕후가 배를 타고 시집 올 때 바람과 풍량을 잠재웠다는 유래가 얹힌 진풍 석탑인 파사석탑(婆娑石塔)에서도 옛 풍취를 느낄 수 있다.

신라 유리왕 19년(서기 42년)에 하늘에서 황금 알이 내려와 수로왕이 탄생했다는 전설이 전하여지는 구지봉은, 원래는 거북이 머리모양을 닮았다 하여 구수봉이라 불리었다.

현 수로왕릉이 있는 평탄한 위치가 거북의 몸체이고 서편으로 쪽 내민 것이 거북의 머리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매년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 봄 ·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치러지는 송선전 제례(崇善殿 祭禮)는 수로왕과 왕비의 신위를 봉안하고 제향을 받드는 의식으로 이때는 전국의 김해 김씨와 허씨, 인천 이씨, 유림 등 만여 명이 넘는 참석 객들이 모여 날을 기린다.

봉황동 유적



사적 제2호, 철기시대 초기의 것으로 높이가 7m, 동서의 길이 약 130m, 남북의 너비 약 30m의 낮은 언덕 위에 이루어져 있다. 구릉의 남쪽에는 회현동의 마을이 인접해 있고, 북동쪽 낭떠러지 밑에도 민가가 들어서 있어 패각층이 드러난 단면과 구릉 위에 흩

어진 흰 조개껍데기를 볼 수 있다.

처음 알려진 것은 1907년이지만, 1920년에 있었던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비롯하여 그 뒤 몇 차례의 학술조사를 통하여 이 유적에 대한 문화적 성격과 연대의 개요가 밝혀져서, 한국 선사시대의 유적지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이다. 일련의 발굴을 통하여, 이른바 김해토기(金海土器)라고 명명(命名)된 토기의 조각들이 가장 많고, 도끼와 손칼과 같은 철기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철기가 이미 일상생활의 도구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철기 이외에 골각제품(骨角製品)으로서도 골촉(骨)·골침(骨針) 등과 송곳 같은 찌르개류[尖頭類]가 함께 출토되었다.

김해토기는 종래의 민무늬토기보다 높은 온도로 구워서 만든 발달된 경질(硬質)의 토기로서, 그 특색은 문살무늬나 샷무늬 등의 타형(打形)무늬가 있다는 점이다. 타형무늬는 토기를 단단히 하기 위하여 무늬가 새겨진 방망이로 두드려서 생긴 것이다. 특히 후일에 와서 신라토기(新羅土器)의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원시신라토기라고도 한다.

1920년의 발굴 때 왕망(王莽)의 신(新)나라 때의 돈인 화천(貨泉) 1 개가 나와 이 패총의 상한연대(上限年代)가 밝혀졌고, 또 함께 발견된 탄화미(炭化米)는 한국의 벼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뒤 34~35년의 발굴을 통하여 한 무리의 돌널무덤과 그 옆의 독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 한 개의 옹관에서 세형동검(細形銅劍)과 청동제품 등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남방식 고인돌[南方式支石墓]의 뚜껑돌로 보이는 한 개의 큰 돌이 현재에도 있다. 금관가야 최대의 생활 유적지인 봉황대는 2001. 2. 5일 회현리패총과 더불어 “김해 봉황대 유적”으로 확대 지정되었다.

대성동 고분

가야의 건국설화가 깃든 구지봉(龜旨峰)과 김해패총(金海貝塚)으로 유명한 회현리패총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으로 인접하여 김수로왕릉이 있다.





이 유적은 90년에서 92년까지 3차에 걸친 경성대학교 박물관의 학술 발굴에 의해 2~6C 금관가야의 집단묘역으로 밝혀졌다.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와 김해공설운동장 사이의 동서로 뻗은 구릉지대에 있다. 길이 약 300m, 높이 20m정도의 구



릉지대로, 경사가 완만해 무덤이 있기에 매우 적합하다. 현재 구릉의 정상 일부분을 제외한 주변의 경사지는 밭으로 개간되어 있다.

발굴조사 결과 1~5세기에 걸친 지배집단의 무덤 자리로 고인돌을 비롯하여 널무덤(토광묘), 덧널무덤(토광목곽묘),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 등 가야의 여러 형식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구릉 주변 평지에는 1~3세기 무덤이 밀집되어 있고, 구릉 정상부에는 4~5세기 무덤이 밀집되어 있어, 삼한시대 구야국 단계에서 금관가야 시기까지의 무덤이 발견되고 있다.

덧널무덤은 나무판을 조립하여 널(관)을 만든 것으로, 이전에 통나무 관을 이용하던 것에서 나무판널을 사용하는 시기로의 전환이 1세기경임을 보여준다. 유물로는 토기류와 철기류, 목류, 중국제 거울 등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고대 무덤 형식의 변화 과정을 보여주며, 중국제 거울이나 토기류에서 한·중·일의 문화교류 상황을 밝혀주고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지! 아름다움을 넘어 고부가 상품으로...

한지냅킨, 한지필터, 차광용한지, 한지포장지, 한지명함, 한지벽지, 전자파 차폐용 한지

우리의 전통산업인 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지난 9월 9일 경북 안동 소재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심우영)에서 열렸다. '한지, 멋과 산업의 조화'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지난 5월에 문화관광부가 마련한 한국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한 발전 계획인 '한 브랜드화 지원전략'에 따른 것으로 6월 전주전통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정책포럼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행사다.

현대화 물결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한지를 문화자원으로 보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한지의 현대화와 실용화, 세계화를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포럼은 충북대 최태호 교수의 '한지, 멋과 산업의 조화'란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경북 한지의 역사성과 우수성, 그리고 발전방향' (전철 원광대 교수), '한지의 상품화 및 실용화 방안' (조현진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를 요약 정리해 본다.

한지, 멋과 산업의 조화 | 최태호, 충북대학교 교수

오랜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온 한지는 한국인의 정서와 멋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용품으로 국민들과 함께 그 흥망성쇠를 같이 하여 왔다. 현대에 와서는 그 역할이 많이 미미해 졌지만 인간이 나고 무덤에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한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대문의 금줄에 한지가 매여졌고, 한지로 바른 창호지와 벽지, 장판지를 깐 방에서 문풍지 소리와 햇빛 은은하게 비치는 창호지 문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돌상에는 장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으레 종이와 붓이 놓이고 어느 것을 제일 먼저 손에 잡나 관심이 집중 된다. 학동 시절에는 서당에서 종이와 붓을





손에 익히고 놀이에는 종이로 만든 제기차기와 연날리기가 빠지지 않는다. 장성하여 혼기

에 이르면 청혼서인 혼서지와 사주단자와 택일을 적은 문서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도 없다. 마침내 생을 마감하여 시신을 염할 때도 한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례식의 만장과 저승길 노자인 지전 또한 한지이며 제사상에 정성들여 쓰는 지방 또한 한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정도에 차이는 있었지만 신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한지의 또 다른 멋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한 한지 공예문화이다. 글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질긴 닥종이를 이용하여 근검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정신과 우리민족의 타고난 눈썰미와 손재주, 미적 감각 등을 결합하여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지 공예예술로 승화하였다.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의 한지의 멋 외에 한지 자체가 가지는 종이로서의 멋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기고 긴 닥섬유로 제조하기 때문에 지질이 매우 부드럽다. ■빛깔이 곱고 은은하며 닥섬유 고유의 광택을 지닌다. ■장섬유 및 중공성의 섬유특성으로 인하여 통기성이 양호하고 온·습도 조절 능력이 우수하다. ■질기고 강인한 닥나무 인피섬유를 사용하여 초지하기 때문에 강인하고 잘 찢어지지 않는다. ■원료 및 초지법에 따라 한지 고유의 향기를 갖는다. ■수록지인 관계로 초지시 다양한 문양을 넣어 제조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한 염색이 가능하며 염색 또한 용이하다. ■기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유지의 제조가 용이하다. ■먹 및 여러 가지 안료에 대한 친화성이 높아 서화작업이 용이하다.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운반이 용이하고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방한용 의류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다. ■폐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지는 이상과 같은 멋도 있지만 종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갖고 있다.

■친수성의 셀룰로오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약하다. ■

다공성인 관계로 먼지의 오염에 취약하다. ■창호지의 경우 다공성으로 통기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동절기 보온성이 낮다. ■장섬유이고 종이 표면이 거친 관계로 장시간 사용시 표면에 보풀이 생긴다. ■다공성이고 장섬유인 관계로 발묵과 염색에 주의해야 한다. ■하절기 수온상승에 의한 지료의 분해로 지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나라 한지 제조 역사는 여러 가지 증거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면면히 이어온 우리의 전통 산업으로 그 질의 우수성은 수세기에 걸쳐 근대까지 중국에서

한지의 또 다른 멋은 다양한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글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질긴 닥종이를 이용해 근검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정신이 숨어있다. 우리민족의 타고난 눈썰미와 손재주, 미적 감각 등을 결합해 실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한지 공예예술로 승화했다.



칭찬이 대단했던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한지 문화유산을 통한 선조들의 인류 문화사에 남긴 업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서양에 제지술의 전달로 동방은 고구려 스님 담징이 일본에(AD 610년), 서방으로는 고선지 장군 휘하 부대원에 의한 사마르칸트(AD 757년)에의 전달이다.

둘째, 세계 최초의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



경'의 발간(AD 751년)으로 일본의 ‘백만탑다라니’보다 20년 이상 앞섰다.

셋째,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인 ‘직지심체요절’의 인쇄(AD 1377년)로 구텐베르그의 ‘42행 성서’(AD 1450년)보다 70여년 앞섰다.

넷째, 세계 최초로 원료 자체에 먼저 염색을 하여 색지를 제조하였다. (미국 종이박물관 설립자 Dard Hunter의 증언)

다섯째, 세계 최초로 봉투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상과 같이 조상들이 인류문화사에 남긴 업적은 실로 대단하여 세계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통을 지닌 한지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으로서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이 녹아있는 가장 동양적이면서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얼과 멋이 깃들여진 우리 문화유산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업적의 결과물인 한지의 고유한 멋과 전통의 계승 발전은 문화유산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한지 고유의 멋과 전통을 현대의 다양한 산업에 조화롭게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간다면 한지의 발전 영역은 무궁무진 하다고 생각되며,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인류문화사에 길이 남을 또 다른 업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북한지의 역사성과 우수성, 그리고 발전 방향 전 철, 원광대학교 교수

경북한지는 차별화 정책을 펴는 것이 효과적이다. 타 지역에서 선호하고 있는 산업화 정책보다는 문화와 함께 숨쉬는 한지업을 진흥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지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독특한 ‘Identity’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한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전통에 바탕한 굳건한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지 응용에 있어서 선부른 양지적 발상은 오히려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게 되므로 항상 한지다운 생각을 갖고 접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글로벌 시대에 전통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으나 전통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

경북의 'Originality'가 세계인의 보편성에 바탕을 두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진정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으로 육성되어야만 그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지의 판매 유통체계는 생산자의 영세성과 소비자의 인식부족, 중간상인들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인하여 그 질서가 매우 문란한 상태에 있다. 더욱이 소수의 중간상인들에 의해 시장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며 중국에서 수입된 저질의 한지가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소비자들을 오도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란한 유통질서는 생산자에게는 이윤 감소와 함께 품질 향상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한지를 접할 기회를 박탈하고 한지에 대한 실망만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의 맥을 단절시키는 중요한 과오를 범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통질서의 회복이 시급하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철저한 품질기준에 의하여 공급되는 한지를 공인된 기관의 검정과 선별을 거친 것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설치가 요망된다. 둘째, 생산자의 책임과 공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품에 생산자 표시를 의무화 또는 권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수입산일 경우는 반드시 이를 표기하도록 해야 한다.

신라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지술을 발전시키고 주도해온 경북은 역사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줄 아는 선진화된 문화인이다. 이처럼 문화를 즐기면서 발전시켜 온 역량과 함께 전통의 맥이 흐르고, 천혜의 지역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지문화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도민들의 의지가 결집된다면 문화와 사업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독특한 경북의 한지

문화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한지의 상품화 및 실용화 방안

조현진,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 공학박사

우리가 흔히 보는 신문종이나 책 종이는 얼마 지나지

한지는 숨을 쉰다. 하지에서부터 처서까지는 습기를 흡수하고 처서가 지나면 습기를 내놓는 역할을 한다. 제 스스로 물을 머금었다 뿜어내고, 장마철에는 제 몸을 적셔 공간을 말려주고 마른 철에는 제 몸을 말려 공간을 촉촉이 적셔 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지가 어찌면 우리네 고운 심성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싶다.



않아서 색깔이 누렇게 변하거나 조각이 약해져 바스라지지만 한지는 다르다. 한지자체는 장섬유로서 닥나무 껍질을 가지고 만든 종이로 보온성과 통기성이 뛰어나고 그윽하며 소박한 질감 그리고 보존성을 가진 세계적인 종이이다.

한지는 숨을 쉰다. 하지에서부터 처서까지는 습기를 흡수하고 처서가 지나면 습기를 내 놓는 역할을 한다. 제 스스로 물을 머금었다 뽐어내고, 장마철에는 제 몸을 적서 공간을 말려주고 마른 철에는 제 몸을 말려 공간을 축축이 적서 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우리의 한지가 어찌면 우리네 고운 심성과 이렇게 닮아 있을까 싶다. 이른바 요즘 종이와는 그 근본부터가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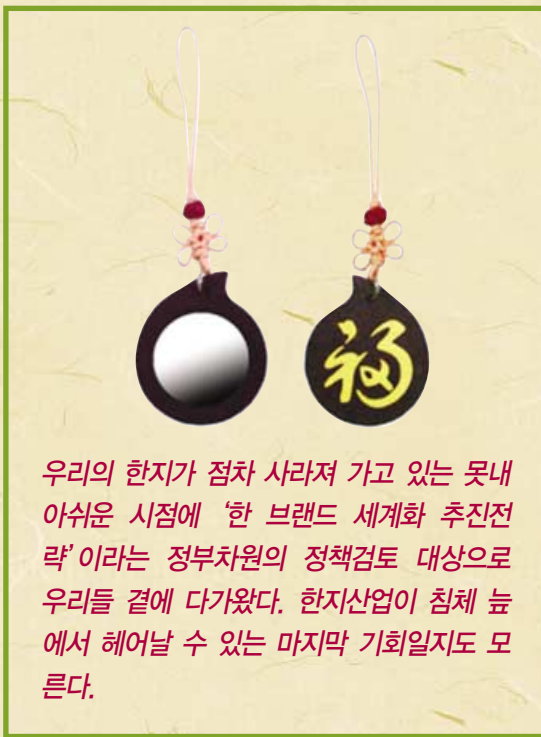
이러한 우리의 한지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못내 아쉬운 시점에 ‘한 브랜드 세계화 추진전략’이라는 정부차원의 정책검토 대상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왔다. 한지산업이 침체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는 모른다. 우리가 애써 우리 것을 모른 채

하고, 알면서도 시큰둥해한 것이 어디 한지하나 뿐이던가? 입으로 책으로, 그리고 매스컴으로야 그 우수성이 어떠니 전통이 어떠니 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개를 돌려버린 것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던가.

그러나 이제 한지는 새로운 변신을 하여야 한다. 아니, 한지를 새롭게 변신시키려는 노력이 오래 전부터 계속 되어왔다. 한지를 단순히 수공업품이라는 외소

성에서 탈피시키고 전통이라는 묶은 껍질에서 꺼내 상품화와 실용화를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는 10여년동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여 마침내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한지의 대량생산과 시장진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한지 및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한지들을 개발하였으며 일부 산업화에 성공하여 현재 시판되고 있는 품목들도 있다. 한지위생냅킨, 니코틴제거용 한지필터, 한지차광지, 한지포장지, 한지명함지, 기능성부여 한지벽지, 전자

파차폐용한지, 표면마감재용한지 등이 그것들인데 이들 개발된 한지들을 우리의 실생활에 응용한다면 더 다양한 품목들로 변신할 수 있는 소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들이다. 어찌면 세계화 전략에 응용 가능한 품목으로서 한지의 상품화 및 실용화를 위한 새로운 변신으로 이어져 우리의 한지문화가 고대문화에 등장하는 한지가 아닌 실존하는 한지로 세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



우리의 한지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못내 아쉬운 시점에 ‘한 브랜드 세계화 추진전략’이라는 정부차원의 정책검토 대상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왔다. 한지산업이 침체 늪에서 헤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램이다.

우리의 한지를 세계화 할 수 있다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우리의 문화를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한지공예, 한지의상 등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문화상품들도 많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한지소재 자체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품목을 대

중보급화 시키기에는 소재에 대한 재질개량이나 물성 및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는 부분들로서 즉 실용화되기까지 많은 연구와 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며, 특히 한지의 상품화를 위한 홍보는 세계화의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된다.

즉 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우리의 전통한지를 알아야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과연우리들 주위에 한지를 알고 외국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언어능력을 구사할 수 있으며 세계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반문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금의 한지는 용도에 따라 서화용, 인쇄용, 건축 내장용, 신앙 의식용, 일반 생활용품, 건축재료용, 공예용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한지의 상품화·실용화를 위한 용도개발에 대한 연구를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연구소에서 1992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 한지넵킨, 니코틴 제거용 한지 필터, 차광용한지, 한지벽지, 한지 포장지, 기능성 한지 벽지, 전자파 차폐용 한지 등 그 폭이 넓다.

한지는 우리 민족의 유·무형 자산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우리한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한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농한기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 가공하던 한지

산업이 경제 발전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량이 줄고, 한지의 용도가 사라지면서 점차 사라져 가는 사양화산업으로 전락되었다. 사양화되고 있는 우리의 한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통 한지 공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제조기술을 발전시켜 상품화·실용화를 위한 새로운 용도의 고부가가치의 한지제품 창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지 자체 만으로의 상품화는 이제 용도를 잃어가고 있다. 상품화·실용화를 위하여 원

료에서부터 디자인, 홍보, 마케팅 모두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서 세계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한지는 정신적, 문화적 소재로서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지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경제적 지원과 우수한 품질 및 특징을 지닌 한지제조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전통공예품 지정 등 정부의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한지는 우리 민족의 유·무형 자산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우리 한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재로 한지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지 제공 : 원주한지문화제)

특히, 더 늦기 전에 우리한지를 제대로 제조할 수 있는 한지전문제조자를 양성하고 세계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의 해외전문가 집단을 육성하는 것 또한 매우 시급히 수행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 _ 서희정 | 프리랜서 기자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아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열차

기적소리 슬피우는 눈물의 프랫트 홈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

영원히 변치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아아 부슬비에 젖어가는 목포행 완행열차

유행가 제목 속에 담은 ‘대전’

최치수 작사, 김부해 작곡, 여자가수 안정 애가 부른 ‘대전블루스’의 노랫말엔 애절함이 물신 묻어난다.

4분의 4박자 슬로 풍의 트로트로서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서정시 구절처럼 애잔하게 들린다. 이 노래 가사는 맨 처음 최치수 씨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금의 악보엔 김부해 씨가 쓴 것으로 돼 있다.

이 노래는 대전역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졌다. 대전은 남한의 한 가운데 있는 광역시인 데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기차, 버스 등이 거치는 교통요충지다. 전국 팔도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충남의 대표고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운행에 들어간 고속철도(KTX) 정차역에다 정부의 행정도시건설예정지들이 부근에 둘러싸고 있어 노른자위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부선(서울~부산), 호남선(서울~목포) 두 노선을 달리고 있는 고속철도는 대전을 갈림길로 해서 서울, 부산, 목포를 향한다. 그래서 대전은 만남과 헤어짐이 교차되고 술한 사연들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대전블루스 노랫말엔 그 같은 지역특성들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노래탄생 배경엔 일화가 있다.



대전역 밤열차 기적소리 듣고 노랫말 작사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일이다. 전후
복구와 조국근대화를 위해 전국민들이 팔
을 걷어붙일 때였다.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사람들이 늘고 일
자리와 학업을 위한 만남과 출장 가는 사
람들도 많았다. 어려웠던 때라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가뭇에 콩 나듯했다.

대부분 기차, 버스, 배를 타고 가까운 거
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걸어 다녔다.

특히 기차는 서민들의 발노릇을 톡톡히
했다. 값싸고 안전하며 시간이 정확하다
는 이유에서였다. 자연히 대전역은 늘 승
객들로 북적댔다. 지금도 그렇지만 밤 기
차를 타는 사람들의 경우 대전역은 추억
의 정거장이다. 잠시 멈추는 짬을 이용,
가락국수를 사먹거나 불일을 보기 좋은
중간 쉼터역 노릇을 한 까닭이다.

작사가 최치수 씨는 그 무렵 어느 날 남녘

으로 출장을 떠나게 됐다. 밤열차를 탄 그
는 마침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대전역 플
랫폼에서 쉬고 있었다.

철길과 역광장, 오가는 기차, 대합실과 플
랫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그의
눈엔 사람들의 활기찬 움직임이 들어왔
다.

왁자지껄한 소리와 기차시간에 맞추기 위
해 뿔박질하는 사람 등 구구 각색이었다.
삶이 녹아 숨쉬는 지방 기차정거장의 소
박한 밤풍경 그대로였다.

시시각각 울리는 증기기관차의 기적, 칙
칙폭폭 하는 열차 움직임 소리도 그에겐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기적소리에 취해있던 그는 문득 악상이
떠올랐다. 한밤의 대전역 모습을 소재로
한 노래를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 것이
다. 완행열차, 목포행 밤기차, 힘겨운 삶
을 이어가는 서민들의 일상 등이 그의 머



리에 떠올랐다.

조용필이 리바이벌해 불러 진한 감칠맛

그렇게 해서 출장을 다녀온 최씨는 그 때의 감흥을 메모해뒀다가 대전블루스란 제목의 노래로 되살려냈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

시계바늘은 자정을 지나 0시 50분에 떠나는 목포행 밤 완행열차를 보고 엮어낸 것이다. ‘잘 있거라’는 단 한마디 인사말도 없이 남쪽을 향해 미끄러져 가는 밤 기차가 고요한 심야의 정적을 뚫고 기적소리를 내며 달리는 모습을 감칠 맛나게 그려냈다.

평범 속에서 발견한 비범이라고나 할까?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혼한 광경들을 가요작가는 아름다운 노랫말로 승화시켜 보석을 만들

어냈다’는 게 가요평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게다가 여가수 안정애의 창법도 특이해 노래가 선보이자 주목을 받았다. 애처로운 호소력이 두드러지고 착착 달라붙는 끈끈한 느낌을 준다.

안정애는 1950년대 후반 선배가수 고복수씨가 운영하던 동화예술학원을 다니며 창

평범 속에서 발견한 비범이라고나 할까? ‘어디서나 대할 수 있는
흔한 광경들을 가요작가는 아름다운 노랫말로 승화시켜
보석을 만들어냈다’ 는 게 가요평론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법을 배웠다. 신인가수인 그녀는 원장인
대선배로부터 직접 창법을 배우는 영광을
안은 것이다. 이미자도 이 무렵 학원을 다
니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

SP음반에 담겨진 안정애의 목소리는 애
절했으나 그녀가 40대 들어 부른 노래는
영 제 맛이 안 나는 것 같다.

이 노래는 가수 조용필과 장사익이 리바
이별해 불러 눈길을 끈다. 조용필이 부른
대전블루스는 독특한 맛이 서려있어 장·
노년층들의 사랑을 한껏 받고 있다. 노래
방이나 술자리에서 이 노래를 뽑는 팬들
이 아직도 적잖다.

노래 히트하자 영화까지 만들어져 눈길

‘대전블루스’와 관련된 또 하나 재미있는
뒷얘기는 노래가 히트하자 영화까지 만들
어졌다는 점이다. <대전발 영시 오십분>
이란 제목의 영화는 대전역을 소재로 삶
과 사랑얘기를 담았다. 영화가 나오면서
가요팬들은 노래제목까지도 한동안 ‘대전
블루스’ 대신 ‘대전발 영시 오십분’으로
바뀌 부르기도 했다.

지역 따라 노래 따라 글을 쓰는 이 한밤에
도 대전역을 거치는 야간열차의 기적소리
가 고요함을 깨뜨리며 서울로, 부산으로,
목포로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는 듯하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 외치면서 말이다.



글 _ 왕성상 | 뉴시스 부국장

필자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남인수 가요제』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이별없는 마
산향> <마산포 순정> 등을 취입했고 기자가수 1호로 sbs 등 방송출연과 글을 쓰고
있다. 한국연예협회 가수분과위원회(등록번호 865호) 소속.
wss4044@hanmail.net

미리보는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문화관광부는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를 발표했다.

문화관광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외래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전국 각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를 대상으로 95년부터 해마다 지속적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축제이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축제'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축제'로 구분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축제를 지정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명칭 사용 △국·도비 지원 △축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한국관광공사 해외 조직망을 통한 축제 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는다.

2006년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학계 및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에 개최된 전국 우수한 축제들 중 18개 축제를 선정(대표·유망축제 11개, 예비축제 7개)한 것이다.

대표·유망축제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2001년부터 6년 연속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돼 한방테마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효종 9년(1658년)부터 대구성안의 객사 주변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차례에 걸쳐 주기적으로 한약재를 유통시켰던 전통 한약시장이다. 우리나라 전역은 물론 중국, 만주, 러시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 한약재를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한약 물류유통의 거점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약령시 보존과 한의학문화의 온전한 전승을 위해 해마다 한방문화 축제를 약령시 개장행사로 개최해 오고 있다.

(5월 초 개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

일반인의 고고학적 체험욕구를 충족시키고 인류사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리는 체험교육행사로 원시체험, 석기제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손으로 만져보는 구석기 체험행사를 지향하며 구석기에 대한 체험과 놀이마당, 공연예술, 선사문화전시, 구석기퍼레이드,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된다. 석기제작 및 사용, 석기복원 및 그리기, 석기모형, 움집제작, 가상발굴 등을 통해 구석기 문화를 체험해 보고 돼지 잡기(수렵체험), 창던지기(수렵체험), 불피우기 기네스대회, 우리가족 벽화그리기 등에서 구석기 놀이를 즐길 수 있다.

(5월 초 개최)



춘천 마임축제

호반(湖畔)의 도시 춘천에서 198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춘천국제마임축제는 순수 공연(예술)과 축제(난장)의 복합적 형태가 어우러진 축제로서, '마임' 장르를 한국 고유의 전통축제 양식을 통해 발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각국에서 초청된 팀의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적 몸짓과 아시아적 전통을 바탕으로 마임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 청량리역에서 춘천역까지 마임축제 관람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개비열차에서의 경험도 색다르다. (5월 셋째주 개최)

인제빙어축제

강원도 인제군 내설악 지류와 내린천의 관문인 소양호에서 은빛 빙어를 주제로 펼쳐지는 빙어축제는 맑고 투명한 빙어와 눈덮힌 내설악 경관, 빙판위에서 행해지는 산촌문화를 만날 수 있는 인제군만의 고유한 축제이다. 빙어축제에서는 빙어낚시대회, 빙어 시식회 등 빙어를 주제로한 행사와 빙상볼링, 전국대회 규모의 얼음축구대회, 스노우산악자전거대회 등의 레포츠 경기, 그리고 눈썰매장, 이글루와 눈조각전시 등 눈과 얼음을 주제로한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2006년 2월 3일~2월 6일 개최)



한산모시문화제

서천의 특산품인 한산모시의 원산지 부각과 전통문화의 육성 발전을 위해 시작된 한산모시문화제는 모시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고 민속놀이를 보존·계승코자 국내외·적으로 알림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저산팔음길쌈놀이(荳彦八畝길쌈놀이)는 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매년 한산모시문화제 행사를 비롯 각종행사시 국·내외에 시연을 통하여 홍보해 오고 있으며 저산8음 길쌈놀이 보존회에서 전승하고 있다. (5월 초 개최)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정신을 되새기고 국난극복의 위업을 계승하고자 매년 장군의 탄신일(4월28일)을 전후하여 개최한다. 매년 이순신장군의 탄신일인 4월 28일을 전후하여 진행되는 아산성웅이순신축제는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남해 관음포에서 헌정수 봉송 및 봉치와 헌다제례, 현충사에서 거행되는 다례행제, 『이충무공 전술비(秘) 연 날리기 대회』 『무과 전시의 재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4월 28일 전후 개최)



남원춘향제

한국 여인의 사랑과 절개를 대표하는 춘향을 기리기 위한 전통문화예술축제로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제는 창무극 춘향전, 춘향국악대전, 전국판소리명창대회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춘향선발대회, 춘향일대재현전통길놀이, 전통목기축제, 용마놀이, 남원농악 등 남원의 전통 민속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펼쳐진다. 한국의 전통문화예술을 사랑하며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백두대간 남방의 중심도시 천년고도 남원에서 한국여인의 사랑과 함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하고 생생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5월 초 개최)



무주반딧불축제

무주 지역에서 반딧불이를 소재로 다양한 상설행사와 놀이마당, 공연 등이 행해지는 축제이다.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반딧불이를 무주군에서는 1997년부터 보호하고 자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반딧불이 축제를 해오고 있다. 주요 행사로는 반딧불이 환경사랑 백일장, 21세기 반딧불이 환경전시회, 21세기 환경토론회, 추억의 민속장터, 반딧불이 신비체험여행, 형설지공고사 체험코너, 반딧불이 자연학교 등이 있다. (5월 초 개최)





함평나비축제

10만평의 유채꽃과 24만평의 자운영꽃을 배경으로 전국유일하게 나비를 주제로 펼쳐지는 함평나비대축제는 나비와 꽃, 살아있는 곤충을 소재로 한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이다. 인정 받고 있다. 나비생태관, 나비·곤충 표본전시관, 수생식물자연학습장, 미꾸라지잡기체험장, 보리·완두그스름체험장, 천연염색체험장 등 총 30여 가지에 이르는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어린이에게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어른에게는 추억과 동심의 세계를 제공하고 있다. (5월 초 개최)



경주 한국의 술과 떡 잔치

우리 쌀 음식의 우수성과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오곡을 원료로 한 우리 민족 전통음식인 술과 떡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민족문화의 우수성이 돋보이는 전통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했다. 술과 떡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주제전시관은 대동술지도, 대동떡지도, 술에 관한 전설을 담아 시음·시연하는 전설존, 술도구 전시, 한·중·일 술제조 비교전시 등이 펼쳐진다. (4월 초 개최)



하동야생차문화축제

화개면 정금리 도심다원과 차 재배지에서 열리는 500년 이상 수령의 한국 최고 차나무 헌다례와 최초로 차씨를 하동에 심은 신라시대 대령공 가장행렬, 무상 선다도, 전국 다인들이 모여 차와 다식을 나누는 들차회, 초청된 중국인들이 18한도에서 힌트를 얻어 긴 주전자를 이용, 찻잔에 차를 따르는 중국 다도 율행 18식이 펼쳐진다. 전통차만들기 경연과 전국 어린이 차예절 경연, 야생차요리강좌 등도 진행된다. (5월 중순 개최)

예비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의 최대 축제로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고궁, 월드컵공원, 남산, 한강 등지에서 펼쳐지는 축제이다. 올해는 서울광장에서 조용필 콘서트인 '서울! 서울! 서울!'을 시작으로 청계천 미리보기, 명성황후, 시카고, 맘마미아 등 역대 최고 뮤지컬을 재구성해 무대에서 보여주는 뮤지컬 갈라쇼와 정상급 프로그래머와 함께하는 컴퓨터 프로 게임쇼 등이 펼쳐졌다.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하이서울 퍼레이드 및 서울광장에서는 전남 광산고싸움, 안성바우덕이, 남사당패 등 팔도대동민속놀이가 펼쳐졌다. (5월 초 개최)



화천산천어축제

얼음낚시 마니아가 아닌 초보자들도 짜릿한 손맛을 느껴볼 수 있는 곳 화천 산천어축제는 화천천 일대에서 개최되며 1월말까지 산천어 얼음낚시터, 부대시설과 먹거리터 등 축제행사가 진행된다. 동시에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얼음낚시터에서는 볼거리 및 먹거리, 체험놀이 등이 벌어진다. 얼음체험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창작설매 경연대회, 얼음 축구 등이 재미를 더한다. (1월 중순 개최)

담양대나무축제

고려초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현대에 계승한 담양 대나무 축제는 전국 죽세공예품 전시회, 담양 대나무 사진전시회, 죽세공예품 경진대회, 전국 대나무 악기 경연대회, 전국 죽검베기 대회 등 기획 행사 5종을 비롯해 전통 대통술 담그기, 대나무 뗏목타기, 대소くり 민물고기 잡기, 대나무 백년 소망등 달기, 대나무 연날리기, 대나무 숯대 만들기, 대숯공예 만들기, 죽로차 만들기, 대숯팩 체험, 죽공예 명인 및 공예인 제작시연, 대나무 종이 만들기 등 대나무에서 대나무로 이어지는 행사로 짜여져 있다. (5월 초 개최)



문경차사발축제

경북 문경에서 발물레와 장작가마로 제작한 전통도자기만 선보이는 문경한국전통차사발 축제는 문경새재 입구에 있는 문경도자기전시관 일대에서 열린다.

전통제작기법을 고수하는 특화전략으로 차문화 발전의 초지로 알려진 문경시 가은읍 봉암사 백운대 마애보살좌상에서 한다의례를 시작으로 도자기 국제교류전과 전국도예명장 작품전, 전국차사발공모대전, 문경전통도자기전시판매, 도예명장 생가투어, 전통망당이가마 불지피기 체험등 다양한 전시 체험행사와 다례시연, 전시행사가 이어진다.

(5월 초 개최)



지리산한방약초축제

산이 높고 물이 맑은 고장 산청은 허 준과 그의 스승인 신의 류유태 선생이 의술을 펼친 곳이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산청에서 자생하는 한약재의 뛰어난 품질과 약 효과가 널리 알려진 전통 한방의 본고장이다. 지리산한방약초축제는 신비로운 동양의학의 세계를 경험해 보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시기를 달리하여 피어나는 자생약초와 한의학의 신비한 효능을 체험할 수 있고, 약초를 이용한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제공과 한방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한방관련 지역종합 축제이다. (5월 초 개최)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정월 대보름 들불축제는 새해 첫 대보름날을 맞아 드넓은 목야지에 큰 불을 놓아 무사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하나됨 속에 무한한 행복과 복을 염원하는 북제주군의 향토민속 축제이다. 목축업이 성행했던 제주에는 주민들의 생업수단으로 목야지에 불을 놓아 목야지를 깨끗이 하고 진드기 등 병충해를 없앴다. 이같은 풍속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관광 이벤트화 한 것으로 목야지에 불을 놓아 불바다의 대장관을 연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2006년 2월 9일~2월 11일)



전국음성품바축제

전국품바축제는 충북 음성군에서 열리는 품바의 모든것을 보여주는 품바 한마당으로 곳곳에서 폭소가 터지고, 웃다가 눈물까지 흘리는 명장면이 연출된다.

전국에서 모인 품바들이 익살과 재치를 겨루는 전국품바왕선발대회와 각종 품바 공연, 신명 나는 난타공연 등이 펼쳐지며 거지 분장과 거지옷 입고 사진찍기, 품바노래 배우기 등 이색적이고 특이한 체험의 마당이 준비돼 있다. (4월 중순 개최)



글 _ 김보라 기자

동작문화원

문화 웰빙을 꿈꾸는 동작문화원

문화 웰빙 시대의 도래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왔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넘어 2만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는 등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서 여가활용 및 문화적 욕구 충족에 대한 기대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수한 인력과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2005년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보이며 경제 열강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발전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잠시 유보되었던 정신적 여유와 안정에 대한 또다른 갈망을 품게 만들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제 웰빙이라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등장해 삶의 유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웰빙이란 ‘복지·행복·안녕’을 뜻하는 말로서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뿐 아니라,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느끼는 소속감이나 성취감의 정도, 여가생활이나 가족간의

유대,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요소를 적도로 삼고 있는 개념이다. 몸과 마음, 일과 휴식, 가정과 사회, 자신과 공동체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웰빙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발맞추어 동작문화원에서는 한차원 높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작구민들의 문화 웰빙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참여하는 문화행사의 전개

1998년 독립적인 사단법인체로 설립된 동작문화원은 문화분야에 풍부한 식견을 가진 인사를 임원진으로 하고 창의적인 문화마인드를 지닌 직원을 공개채용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동작문화원의 대표적 문화프로그램으로는 초창기부터 운영하고 있는 문화대학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23기 8만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문화대학은 국악, 생활영어, 컴퓨터, 차밍디스코등 35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 강사진, 쾌적한 현대적 시설의 교육장을 갖추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동작문화대학의 대표적 강좌인 컴퓨터교실은 인터넷 열풍인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원내 41대, 사당문화회관 분원에 22대를 설치, 컴퓨터 기초학습, 인터넷 활용 등을 교육해 구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우리의 가락과 소리를 찾는 민요,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표





현하는 한국무용, 전통악기로 흥을 돋구어 주는 국악반 수강생과 수료생들은 장애인, 불우노인, 청소년 수용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며 문화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사회환원이라는 공익적 차원으로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용인에 있는 영보자애원을 방문하여 민요, 한국무용, 국악, 우리춤 체조 등 문화대학에서 배운 실력을 바탕으로 위문공연과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인 사당역에서 예술무대를 개최해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풍물놀이, 댄스스포츠, 차밍디스코, 한국무용 공연 등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또한 동작구민체육센터 준공식, 보라매공원 단오축제,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기공식 기념공연, 지하철 7호선(승실대역, 상도역, 장승배기역) 개통 기념공연 등 각종 문화공연에도 참여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본격 실시에 따라 구민에게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고자 문화학교를 중심으로 “토요예술무대”를 정착시켜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문화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악, 한국무용, 차밍디스코, 댄스스포츠 등 “토요예

술무대”에서 공연하는 수강생들의 실력은 이제 전문가 못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출연한 작품을 가족 및 구민과 함께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현재는 동작문화복지센터 대강당 570석을 모두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매우 인기가 높은 공연 프로그램이 되었다.

문화대학 운영외에 동작문화원에서는 ‘사육신 예술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문화행사는 ‘주부 백일장’ 및 ‘사진 공모전’ 개최, ‘우수영화 상영’, ‘전국 문화유적답사’, ‘명사 초청 강연’, ‘우수 예술단 초청 공연’ 및 각종 기념·축하 공연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관람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육신 예술문화제는 문화원의 꾸준한





문화 저변 확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문가만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무대 행사와는 달리 현재는 문화대학을 수강한 순수 구민 중심으로 개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역 주민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고 체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대표적인 지역 전통문화 행사로 발전하고 있다.

문화 유적답사는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을 직접 현장 체험함으로써 민족의 전통과 정신을 이해하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유적답사 활동시, 사전에 탐방지역의 문화유산 자료를 배부함은 물론 답사 전에 한국전통문화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우리 조상의 찬란한 문화유산에 대한 경외심과 애정을 갖도록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고 있다.

문화 웰빙의 결실, 전국 문화원 평가 “대상”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작문화원의 다양한 노력은 2004년 전국 문화원 평가 대상 수상, ‘Hi-Seoul 페스티벌 2005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외에도 2000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문화원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2005년 5월5일 시청 앞에서 개최된 ‘Hi-Seoul 페스티벌 퍼레이드’에서 문화원의 풍부한 인적자원 활용 및 구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여 창의적이고 완성도 높은 퍼레이드를 공연하였다. 문화원은 구의 상징성·역사성을 담아 뚝단배를 형상화한 차랑 및 구 상징으로 장식한 트레일러 위에서 사육신 승천 장면을 재연하고 오방기·만장기, 풍물놀이, 옛선비 재연, 현대무용, 차밍디스코, 댄스스포츠 등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키는 가장 행렬을 공연하였다. 이 날의 공연은 구민의 적극적인 자율참여 및 그동안 축적된 문화원의 노하우와 기량이 집약되어 표출됨으로써 2005년 6월 15일 서울시시장으로부터 당당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웰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도 전국 문화원 평가 대상 수상과 Hi-Seoul 페스티벌 퍼레이드 『최우수상』의 결과는 지방문화원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방향성 제시와 문화향수 확대, 문화적 기본권 신장이라는 목표에 충실했던 결과이며 국민의 기본권 신장,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공공성 제고에 기치를 든 평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다. 동작문화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개발,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구민 누구나 즐겨찾는 참다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글 _ 장은주

동작문화원 총무부장(동작구청 문화공보과)

배봉산(拜峯山)에서 화성(華城)까지

—복권기금 문화탐방행사를 마치고—

향토문화탐방 신청을 받을 때마다 70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 신청을 해 오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물론 교통비며 숙박비 등 실비로 회비를 받고 가는 탐방이지만 노인 분들을 모시고 가면 걸음이 느리시니 단체행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고 문화해설사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해도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새는데 들어서 뭘 해?” 하시며 듣지를 않으시니 모시고 간 보람도 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이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여행자보험이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에 복권기금의 사회복지환원 차원에서 전국문화원연합

회를 통해 내려 온 돈으로 어르신 들 중에 역사탐방을 한번도 안 해보신 분들을 모실 테니 각 동에서 세 분씩만 그런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며 동대문구 노인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좋은 일이야. 걸추적 거린다고 노인 분들을 팔시 하는 세상에 문화원이 좋은 일 하는 구먼,



전에는 구청에서 그런 일도 좀 하더니만 이제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노인들이 이제 소외계층이야” 하시며 고마워 하셨다.

8월 27일 아침에 동대문구 노인복지관 앞에서 어르신 80명에 도우미까지 포함 90명이 2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먼저 우리 구 관내인 홍릉의 영취원과 송인원을 찾았다. 고종임금의 후궁이신 순헌귀비 엄비의 무덤인 영취원과 영왕과 이 방자여사 사이의 딸아들 두 살배기 이 진(晉)의 무덤인 송인원을 둘러본 후에 종묘에 들렀다.

“종종 소일하러 여기를 나와 보긴 했지만 우리가 뭐 알고 보납? 거기 있응 게 그러나 보다 했는디 선생님 설명 들으께 이 집이 임금들 위패를 모셔둔 곳이라고 하는 구먼” 마침 역사답사행사를 취재하러 나온 기자에



게 일행 중에서 연세가 제일 지긋해 보이시는 어르신이 그만큼이나마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종묘를 떠나 수원 화성까지 약 1시간 20여분의 버스 안에서 우리 구 전농동 소재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사도 세자의 무덤이 아들 정조대왕에 의해 지금 우리가 가는 수원 땅 화산으로 옮겨갔다는 얘리며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이야기 등 해설가는 정성을 다해 설명을 했지만 듣는 등 마는 등 몇 분만 관심을 보이시더니만 우리 문화원 민요 도우미들이 통로에 나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경기민요를 불러 젖히니 그때서야 얼굴에 희색이 가득하신 모습을 보면서 역시 노인분들을 부축하기 위한 도우미들을 민요수강생 출신으로 구성한 것이 제대로 들어맞았구나 하는 위안을 삼을 수 있었다.

“아니! 문화원이 무슨 돈이 있다고 갈비로 점심을 사 주냐? 이거 비쌀 텐데….” 노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며칠 전에 사전 답사 차 수원에 왔을 때 어르신들 점심메뉴를 정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었다. 수원 하면 나부터 소갈비가 생각나는데 그렇다고 모처럼 모신 어르신들께 갈비탕 한 그릇으로 점심대접을 하기는 너무 소홀한 것 같아 1인당 1만5천 원짜리 소갈비정식으로 정했다.

“문화원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위원회에서 내려준 돈으로 사는 겁니다. 로또복권 같은 복권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 거지요. 그렇다고 어르신들 복권 사시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능청을 떨자 좌중에 웃음바다가 철렁이었다.

“오늘부터 열심히 복권 사야 쓰겠네.” “하하…” “호호…”



조선왕조 때 한양을 지키는 한성 4진의 하나인 수원 화성은 1997년 UNESCO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역사적 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있다. 점심식사를 한 화홍문의 수문은 7개로서 다른 성의 5과수 수문과 비교가 된다는 해설가의 설명에 노인들은 아이들처럼 우르르 화홍문을 바라 본다.

정조는 즉위 후에 홍인문(동대문)을 통해 성안으로 들어오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 무덤을 향해 절을 하며 지나 갔다하여 산 이름마저 배봉산(拜峯山)이라 했던 우리 구 전농동에 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수원 팔달산을 중심으로 화성을 축성하고 행궁행사를 거창하게 치렀다고 한다.

마침 토요일 오후라서 화성 입구에서는 수문장 교대식을 비롯해 다채로운 행궁행사의 일부가 소개되고 꼬마열차가 운행되어 성곽을 둘러볼 수 있었다.

화성이 유네스코로 지정되기까지는 수원문화원장 출신인 심재덕 전 수원시장의 공로가 있었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분의 얼굴 한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이 문화원장이셨기에 더욱더 화성복원에 정열을 쏟아부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원이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개발 보급에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와 청량리 잔칫집에서 어르신들에게 저녁을 대접하면서 민요도우미들이 나서서 흥겨운 민요공연을 끝내고 나서 참가한 어르신들께 오늘 행사의 소회를 여쭙어 보았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소외계층이 따로 없고 이제는 노인이 소외계층이다. 행동이 굼뜨고 기억력이 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소외받아서야 되겠느냐?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라도 해주니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이 확 풀린다.”며 고마워 하셨다.

2005년 8월 27일. 그날은 내게도 무척 행복한 하루였다고 기억될 것이다.

글 _ 권태하 | 작가,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열려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도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1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경기도 포천시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문화관광부와 KBS가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포천시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정부가 직접 주최하는 전통 민속분야의 유일한 행사로 각 시·도 대표단의 열띤 경연과 시연을 통해 선조들의 혼과 열이 담긴 신명나는 장단과 가락으로 한국 민속예술의 진수를 선보였다.

특히 청소년민속예술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민속예술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서 함양과 민속예술의 세대간 전승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1994년부터 한국민속예술축제와 병행 개최되어 왔다.

16개 광역시·도와 이북5도를 대표하는 21개팀 1,377명이 출전하여 펼쳐진 경연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에는 제주도의 '귀리겉보리 농사일소리'가, 국무총리상에 전라남도 '순천낙안읍성두레놀이'가, 금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에 '달성하빈들소리' '전주기접놀이'가, 은상인 경기도지사상에 '애원성'(함경북도) '거침뱅인영감굿', '광주월계상여소리'가, 동상에 '거북돈지능목짚치기'(강원도), '동래학춤', '유성전민고을상여놀이'가 각각 수상했다.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지회장 김종기)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를 열고 관내 시·군을 대표하여 26개 단체 1천 5백여명과 1개 시연팀(광주종합고등학교와 광지원농악팀) 및 4개 특별출연팀(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기 고장의 풍물과 농악 등 다채로운 민속공연을 펼쳤다.

이틀에 걸쳐 펼쳐진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에서 이천시 '울면 정승달구지'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고양들소리'와 '화성농악'이 각각 우수상을, 그리고 안성시 '대동줄다리기'와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가 공로상을 받았다.

동작문화원 국악팀, 서울시민예술축제 대상 결정

동작문화원(원장:연만희) 국악팀(참가인원:27명, 지도교사:정철기-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음악이수자)이 지난 8월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광진문화예술회관에서 서울문화재단 주최로 개최된 제1회 서울시민예술축제 전통예술제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팀으로 결정됐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데뷔무

대인 전통예술제에서 동작문화원 국악반이 서류심사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본선에서 농악놀이를 기본으로 한 풍물공연으로 입상했으며 오는 12월 17일 오후 5시부터 열리는 제1회 서울시민예술축제 "온고지신 - 풍요로운 전통예술제"에서 시상을 겸한 우수단체의 초청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34만 구민의 숙원사업’ 계양문화원 개원

인천 계양문화원(원장 홍창의)은 9월 27일 오후 2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문화원에서 박희룡 계양구청장과 전국문화원연합회 권용태 회장, 허문명 인천시 지회장을 비롯해서 인천시 문화원장, 계양구의 회 의원, 문화원 임원 및 지역 문화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다.

이 날 홍창의 원장은 개원사를 통해 계양구민의 문화적 창달을 이룰 수 있도록 구민 문화생활 향상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으며 박희룡 구청장은 34만 계양구민의 숙원사업인 문화원의 개원으로 문화 예술 로드맵이 완성되는 단계로서 향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

제5차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가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남 통영에 위치한 통영청소년수련관에서 백여 명의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연수는 지역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보다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아래 (주)다음 문화예술기획연구회에 의뢰해 지역문화의 영역별 워크숍과 예술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새로이 도입한 것으로 기

존의 수동적인 태도를 탈피, ‘소리’와 ‘짓’을 통해 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느낌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연수는 나와 우리에게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문화원 간사로서의 지향점을 발견케 하는 내실있는 시간이 됐다.

문광부 양영술 사무관, 지방 문화정책 설명



문화관광부 양영술(지역문화과) 사무관은 9월 26일 열린 제5차 전국문화원 간사 연수회에서 정부

의 지방문화정책을 소개하면서 근무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문화원 간사들이 지역문화의 파수꾼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있는데 대한 인사와 함께 지방문화원 지원 예산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특색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발굴 육성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각 문화원의 운영실적 평가를 기준으로 우수 문화원을 집중 지원하는 등 경쟁 원리에 입각한 문화원의 운영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사무국장 등 인력의 공개채용 및 재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면서 지방문화원진흥법을 개정, 지역문화지도자제도의 도입을 신설함으로써 조직의 안정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차생 진해문화원장, 시민대상 수상



진해문화원 박차생(朴杻生) 원장이 지난 9월 1일 오전 9시 진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병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7백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6회 진해시 시민대상을 수상

했다. 박 원장은 1986년부터 문화원 이사 와 부원장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해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추진에 몰심양면으로 헌신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사회 봉사 부문 시민대상을 받게 됐다.

박영수 청주문화원장, GS문학상 수상



청주문화원 박영수(朴永洙) 원장이 수필 '붉은 악마' 외 4편으로 제1회 GS에세이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10월 3일 오전 11시 청원 초정스파텔에서 전국 3백여 명의 수필가들이 참

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청원국제에세이문학 페스티벌 행사에서 영예의 GS 에세이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박 원장은 상패와 함께 2백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GS에세이문학상은 계간문예가 GS그룹의 후원을 받아 올해 신설한 전국 규모의 문학상이다.

천안문화원 이정우 사무국장 '천안시민의 상' 수상



지난 10월 1일 천안 시민회관에서 이정우(李丁雨 48)사무국장이 제22회 천안시민의 상을 수상했다.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정우 사무국장은 20여 년간 천안문화원에 몸담고 있으면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향토사 연구 등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수상을 하게 됐다.

조남식 전남지회장 등 문화원 관계자 4명 문화훈장 서훈



• 오른쪽부터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김태원 전 영천문화원장, 조남식 전남지회장, 조규돈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문화관광부는 '문화의 달'을 맞이해 10월 15일 전주시에 있는 한국 소리 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와 문화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문화예술발전 유공자에 대한 문화훈장 서훈식을 가졌다.

**조남식 전라남도지회장,
옥관문화훈장 서훈**

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이며 전남지

회장인 조남식(趙南植) 전 영광문화원장은 사재로 부지를 구입해 기부체납 방식으로 영광문화원을 설립한데 이어 35년간 향토사 발굴조사와 지역 문화유산 연구 등을 통해 전남지역의 향토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한 공으로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김태원 전 영천문화원장,
옥관문화훈장 서훈**

김태원(金台原) 전 영천문화원장은 영천아리랑, 영천곳나무싸움 등 민속문화의 발굴 보급을 통해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한 공으로 옥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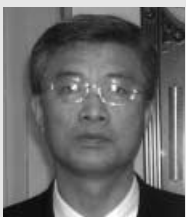
**남선우 성남문화원장,
화관문화훈장 서훈**

성남문화원 남선우(南善祐) 원장은 성남로타리 도서관문화원, 장학문화재단 등의 설립을 통해 지역의 소외계층에 헌신하고 성남문화원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체계적인 향토문화 연구·발굴에 기여한 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조규돈 강릉문화원 사무국장,
화관문화훈장 서훈**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예능보유자인 조규돈(曹奎勳) 강릉문화원 사무국장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의 전승, 보존, 향토사 발굴연구 및 지역문화축제 개발 등을 통해 강릉지역의 전통문화창달과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김이기 사무총장에게 녹조근정훈장 서훈



전국문화원연합회 김이기(金利基) 사무총장이 9월 30일자로 녹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김 사무

총장은 서기관으로 퇴임하기까지 공무원으로서 평생을 봉사정신으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이 훈장을 받게 됐다.

생활문화 실천운동 간담회

전국문화원연합회에서는 9월 15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소연회장에서 문용린 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당 연합회 회장단 및 많은 지방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문화 실천운동 간담회'를 가졌다.

'건강한 생활문화, 아름다운 사회의 첫 걸음'을 표어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로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의 훼손과 더불어 사회규범 해이가 심각한 상황

을 직시하고 이를 다소나마 개선하고자 모인 자리였다.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지켜야 할 문화, 바뀌어야 할 문화, 현대화해야 할 문화를 중심으로 올바른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난 해 향토사료조사수집비를 지원 받지 못한 지방문화원을 대상으로 생활문화 초청인사 특강을 시행해 본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명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창문화원

역사·문화체험을 다녀와서

김희정 (평창 약수초등학교 교사)

지난 7월 18일, 우리 학교 전교생 37명은 평창문화원 후원으로 강릉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날씨는 더웠지만 우리 아이들의 표정은 마냥 즐거웠다.

대관령 박물관의 아기자기한 모습과 섬세하게 꾸며놓은 전시물들은 시골 할머니가 정성스레 닦아놓은 그릇처럼 정이 듬뿍 가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게다가 친절하게 문화해설을 해주시던 할아버지의 설명은 마치 흥미로운 옛날이야기처럼 귀에 쏙쏙 들어왔다.

1학년 아이들이 무엇을 알라마는 꿈지락거리며 작은 수첩에 연필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엽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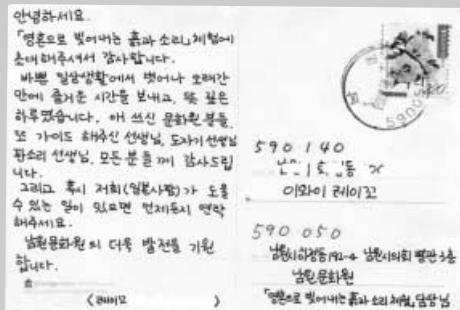
오죽헌을 둘러본 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참소리박물관으로 향했다. 에디슨의 발명품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신기하고 경이로운 발명품들로 인해 더위도 싹 잊은 듯이 보였다.

“축음기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개 이름이 뭐죠?” 하고 묻는 안내원의 질문에 아이들은 일제히 “니퍼요!” 하고 대답했다. 그게 제일 신기했던 모양이다.

통일공원을 둘러본 후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띄약별 아래서 보낸 하루가 고단하기도 하련만 잠든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고 생각을 키워준 평창문화원 측의 배려에 감사드린다.

일본인 주부 이와이 레이코 씨 남원문화원 행사에 감사 편지 '눈길'



지를 통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이처럼 좋은 행사를 마련하느라 애쓰신 문화원 분들과 가이드해주신 분, 도자기 선생님, 판소리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레이코씨는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난 9월 9일 남원에 거주하는 국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늘사랑 천년고도 남원문화 이해 행사에 참가했던 일본인 주부 이와이 레이코씨가 남원문화원 앞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

‘영혼으로 빚어내는 흙과 소리체험 프로그램’이란 부제를 단 남원문화 이해 행사에 참가했던 레이코 여사는 이 편

연락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원문화원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하나의 사례”라며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 무언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는 만큼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기관에서 한국 씨름 선보여

10월 22, 23일 이틀간 도교 료고구에 있는 국기관에서 한국전통경기인 씨름 대회가 열렸다.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많은 관객들이 몰린 가운데 가수 이기찬과 난타, 사물놀이 공연이 식전과 식후에 벌어져 전통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한마당이었다.

22일은 90kg 이하급의 선수 16명이, 23일에는 90kg 이상급의 선수 16명이, 각각 2 팀으로 나누어져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기를 치렀다.

90kg 이하급의 태백·금강급 경기에서는 구미시 체육회의 이성원 선수가,

90kg 이상급의 한라·백두급 대전에서는 현대삼호공업의 하상록 선수가 각각 체급별 장사에 등극했다.

일본인들에게 씨름은 낯선 스포츠로 경기가 시작되기 전 시범경기를 통해 씨름의 기술과 경기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일본의 스모와는 완전히 다른 룰 때문에 관객들의 흥미를 끌었다.

지난 해에는 한국에서 일본의 스모 경기가 행해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 스포츠를 통해 양국간 교류가 깊어질 것을 기대해 본다.

(출처 : 국민일보 인터넷 뉴스)



완주문화원 10월 6일 원사 준공식 가져

완주문화원(원장 구영철)은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35번지 일원에 500평의 대지 위에 건평 170여평의 현대식 지상 2층 규모의 원사를 신축하고 10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내외 귀빈과 문화원 임원 및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8억 5천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새 원사는 향토자료도서관, 문화강좌교육실, 향토자료실, 다목적실 겸용인 대회의실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구 원장은 '고산지역은 예부터 현감이 거주하던 곳으로 많은 공적비가 산재해 있고, 고산향교를 비롯하여 많은 정자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만경강의 상류인 고산천이 흐르고 있어 생태문화의 보고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완주문화원의 정체성 확립 및 향토자료 수집, 보존, 연구사업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광명문화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 원사 신축

광명문화원(원장 안수남)은 광명시 하안2동 철망산 아래 대지 1,432평 건평 707평(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원사를 신축(총 건축비: 47억 5,200만원)하고 9월 8일 오후 3시에 개관식을 가졌다. 이날 당 연합회 권용태 회장과 광명시 백재현 시장, 문해석 시의회 의장, 지역출신 국회의원인 이원영 의원 등

내외 귀빈과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개관식에서 안수남 원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해소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안원장은 특히 원사 건립에 힘써 온 전임 정원조 원장께 고맙다는 인사도 잊지 않았다.

광주서구문화원, 시 낭송하며 가을낭만 만끽

지역 문화원이 청소년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가을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시 낭송대회를 펼쳤다. 광주 서구문화원은 10월 28일 오후 2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청소년과 일반시민이 참가하는 제2회 서구 애송시 낭송대회를 벌였다.

함축된 우리 언어예술의 아름다움을 인식시키고 지역민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이번 시 낭송 행사는 초·중·고등부와 대학·일반부를 대상으로 치뤄졌다.

전국문화원 새로운 얼굴

대구광역시지회장에 정명표 씨 선임

전국문화원연합회 대구광역시지회는 지난 9월 3일 지회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3대 지회장에 정명표(鄭明杓 63) 서구문화원장을 선임했다.

새로 선임된 정 지회장은 현재 음식점업 및 요식업체인 (주)서원 알리앙스와 (주)서원 엑스코 알리앙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의 장애인후원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성동문화원장에 정진섭 씨 선임

성동문화원은 8월 25일 성동 청소년수련관 1층 무지개극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정진섭(鄭鎭燮 63)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9월 30일 오후 4시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성동구청장과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서 초대 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과 서울시 및 성동구의 회 의원, 관내 기관장, 직능단체장, 서울시내 문화원장과 문화가족 등 3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정원장은 태진운수(주)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그동안 문화원 부원장으로 헌신해 왔다.

강남문화원장에 김성옥 씨 선임



강남문화원은 9월 7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속회)를 열고 제3대 원장에 김성옥(金成玉 61)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회원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문화원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회의 일단을 밝힌 김 원장은 그동안 서울 중앙지검 범죄예방 강남지구협의회장과 강남문화원 이사로 활동해 왔으며 현재는 (주)영건종합건설 회장, 청송농원 대표, 을지자동차상사 대표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선재 마포문화원장 유임



마포문화원은 9월 27일 거구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제3대 원장에 이선재(李善宰 68) 현 원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교육사업에 진력해 온 이 원장은 재선임을 받은 자리에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 고장의 지역문화 발굴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임원들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 부단히 노력하자고 인사를 했으며,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문화원 원사 이전에 대해 의회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피력했다.

기장문화원장에 구석기 씨 선임



부산 기장문화원은 7월 4일 문화원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구석기(具碩基 68)씨를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한 달 뒤인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최현돌 기장군수와 기장군의회 최영환 의장을 비롯해서 내외 귀빈 및 많은 문화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신임 구 원장은 기장개발협의회 위원장과 고산 유선도선생 시비건립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기장문화원 창립준비위원장으로 문화원 설립에 공헌해 왔다.

연수문화원장에 김원옥 씨 선임



인천 연수문화원은 9월 21일 문화원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김원옥(金媛玉 63)씨를 선임했다.

두 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경선을 통해 70% 이상을 득표, 선임된 김 원장은 숙명여대 불문학과와 성균관대 대학원 불문학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프랑스 루앙대 대학원 불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불문학자로서 현재는 프랑스 노르망디 한불친선협회 문화예술교류위원장, 도서출판 〈열린생각〉 대표(시 창작반 운영), 계간 〈아트리그〉 발행인으로 일해왔다.

한편 2001년 10월부터는 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우리문화 구독문의 02)704-2311

우리의 전통주를 찾아서

술의 종류는 나라마다 무척 많으며 모두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삼한 시대 이래로 전통적인 비법을 간직한 술들이 빚어져 왔으며, 특히 조선 시대에는 수백여 종에 달하는 술들이 빚어졌는데, 다양하게 발달된 술은 조상들의 생활에 멋과 여유를 더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술들로 우리 술상이 채워지고, 전통주는 그야말로 명절 때나 찾게 되는 술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호에는 잊혀져가는 우리내 전통주를 찾아보았다.

경주 교동법주

신라 수도였던 경주의 교동법주는 천년의 전통을 지켜온 약주이다. 왕과 문무백관들만이 즐기도록 제한한 특별주로 알려져 있으며 알코올 도수는 16도이다. 찹쌀 특유의 찢직한 감촉이 특징이다. 교동법주는 경주 최씨 문중의 비주로 알려져 있는데, 조선 숙종 때 궁중의 수라상 감독관인 사옹원의 참봉을 지낸 월성 최씨 가문의 8대조 최국선공이 법주의 맛에 푹 빠져 제조법을 사가에 전수했다. 보통 술 빛을 양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찹쌀과 누룩, 물로 밀술을 만들어 약 10일간 발효 시킨다. 밀술이 익으면 덧술을 만드는데 밀술에 물을 붓고 끓여서 식힌 뒤 찹쌀로 지은 고두밥을 섞어 넣는다. 약 20일이 지난 뒤 용수(술이나 장 따위를 거르는 데 사용하는 기구)로 거른 뒤 두 차례의 숙성단계를 거쳐 술이 완성된다. 미향색을 띠며 찹쌀 특유의 찢직한 감촉과 더불어 순하면서도 곡주만의 강한 술맛을 느낄 수 있다.



김포 문배주

클린턴, 예천 등 국빈 접대용으로 유명한 문배주는 누룩, 좁쌀, 수수로 빚은 증류수이다. 그 향이 문배나무 과실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 술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되었으며 원래 고향은 평양이다. 현재 문배주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기춘씨가 선대의 비법을 전수받아 4대째 술을 만들고 있다. 옅은 황갈색을 띠며 문배향이 강하다. 알코올 함량은 40%이다. 누룩과 좁쌀, 물을 넣어 밀술을 만든 다음 5일후 수수밥을 넣어 1차 덧술을 하고 다음날 수수밥으로 덧술을 한번 더 한다. 이 때 수수밥은 죽처럼 질게 짓는다. 숙성 단계를 거쳐 소주로 내린다.



용인 옥로주

옥로주는 물 좋기로 이름난 용인시 백암면 대덕산 계곡에서 행산되는 토속 증류식 소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12호다. 알코올 함량은 45%로 다소 독한 편이지만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마시기에 부담감이 없다. 옥로주는 누룩과 술밥에 율무가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누룩을 만들 때 통밀에 율무를 넣어 함께 찐다. 위장병, 피부병 증기에 효험이 있다.

안동 소주

경북지방에서 여름철 배알이의 명약으로 쓰였던 전통적 증류주이다. 고려 충렬왕 때 몽고군을 통해 도입된 뒤 명문가에서 가양주로 전해 내려왔다. 영국 여왕 방한시 생일상을 차려 더욱 유명해진 무형문화재 12호 조옥화씨가 제조비법을 되살려 빚고 있는 이 술은 알코올 45%로 세지만 그윽한 향취와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다. 체증(滯症), 복통에 한잔씩 마시면 효과가 있고 화상을 입었거나 독충에 물렸을 때 바르면 해독이 된다.



면천 두견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86호인 두견주는 고려 궁중에서 애용했던 약용술로 일명 진달래술로 통한다. 고려왕조 개국공신 복지겸의 딸이 충남 당진군 면천의 아미산에서 백일기도 끝에 산신령의 계시로 두견화와 참쌀, 샘물로 술을 빚어 앓고 있던 아버지의 병을 낫게 했다는 전설이 있다.

두견주는 단맛과 점성이 있고 향취가 좋은 술로 매운 맛이 도는 19도로 고급술이다. 하루에 한 두잔 마시면 류마티스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원료로 들어가는 진달래꽃은 4월 초순에서 중순 사이에 따서 건조시켜 두었다가 일년 내내 사용한다. 이때 꽃은 서서히 말려야 향기도 좋고 술도 맑아진다. 진달래꽃을 너무 많이 넣으면 술이 붉어지는데 약용으로 쓰려면 충분히 넣는 게 좋다.

참쌀로 고두밥을 지어 누룩, 물을 넣어 술독에 안친다. 7일간 발효시키면 밑술이 만들어 진다. 덧술도 역시 참쌀로 고두밥을 짓고 누룩과 물을 섞어 안치되, 말려 두었던 진달래꽃을 물로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뒤 겹겹이 넣는다. 덧술에 밑술을 쏟아 붓고 실내온도를 15~18℃로 유지하면서 50~70일간 발효시킨다. 자루에 넣어 짜서 20일 정도 숙성시키면 두견주가 완성된다.



전주 이강주

호남의 명주인 이강주는 조선시대 상류사회 최고의 술이다.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이 술은 전통 소주에 배와 생강을 넣어 만든다. 생강의 매콤한 맛과 계피향이 어울려 감칠맛이 나며 부드럽게 취하고 뒤끝이 깨끗한 게 특징이다. 울금, 꿀 등 한약재가 가미돼 신경안정, 피로회복에 좋다. 알코올 도수는 25도로 순한 편이다.

진도 홍주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약용 소주이다. 조선시대에는 '지초주'라 불린 이 술은 민요, 서화와 함께 '진도3가락'으로 꼽히는 진도인들의 애향주이다. 쌀과 지초로 만들며 지초뿌리에서 붉은 빛깔이 우러나와 홍주라고 한다. 신경통 위장병 설사 변비 등에 좋다. 알코올의 함유량은 41%이다.

함양 지리산국화주

지리산의 서리맞은 국화로 만드는 국화주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돼 있는 1500여년의 역사를 지닌 명주이다. 야생국화, 생지향, 구기자 등을 넣어 숙성시켜 향이 좋다. 동의보감에선 눈을 맑게 하고 이뇨 작용을 돕는다고 전한다. 알코올 함량은 16%이다.

전통주 '맛' 알고 즐기기 노하우

전통주를 고를 때는 먼저 색상을 살핀다. 맑고 황금색을 띠는 것이 좋은 술이다.

단, 약재 등 곡물이 아닌 원료가 들어간 경우 원료의 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색이 짙으면 맛도 진하고 오래된 술이다. 술은 오래된 것이 좋다고 여기기 쉬우나 곡물을 사용한 발효주는 만든지 100일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엔 냄새를 맞는다. 전통주에는 크게 두가지 향이 있다. 하나는 누룩의 독특한 향으로 구수한 느낌의 냄새가 난다. 누룩향에 낯선 사람은 다소 꺼려질지 모르나 적당한 누룩향은 전통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 또 하나는 과일 향이다. 과즙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잘 발효된 전통주에서는 사과향이나 수박향 등 과일향이 난다. 이 과일향은 누룩의 밀겉질 성분이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향기로 저숙성 시킨 약주에서 많이 난다. 반드시 냄새를 맡아보고 취향에 맞는 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 다음엔 맛을 본다. 전통주는 단맛, 떫은맛, 신맛, 구수한맛, 쓴맛이나 매운맛, 청량미의 여섯가지 맛 중 어느 하나도 두드러지지 않고 함께 어우러진 것을 으뜸으로 친다. 전통주는 8℃ 정도로 차게 마셔야 제 맛이 난다. 담백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보다 차게, 다소 짙은 맛과 향을 즐기는 사람은 덜 차게 마시는 게 좋다. 온도 변화가 없도록 포도주처럼 얼음을 채워두고 마시면 더욱 좋다.

글 _ 김보라 기자

한산 소곡주

백제인이 즐겨 마신 충남 서천의 토속주이다. 선비가 취해 과거를 보지 못했다는 전설 때문에 '앓은뱅이술'이라고도 불린다. 누룩과 참쌀, 멥쌀, 들국화, 메주콩, 엿기름, 생강, 고추를 섞어 100일간 숙성시켜 만들며 은은한 향기와 입안에 도는 독특한 맛이 그만이다. 말초혈관을 확장하고 혈압 강화 작용이 있어 고혈압 방지에 좋다. 알코올 함량은 18%이다.



• 용문사 대웅전 기와와 풍경

바스락, 바스락 마중나온 산사의 늦가을

11월의 풍경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것.
그것은 뭐니뭐니해도 산사의 풍경이다.
특히나 경기 용문사의 단풍길과,
영주 부석사의 은행나무길은 늦가을 풍경의
대명사 격으로 통한다.

바스락, 바스락...

11월 산사의 첫 마중객은 아무래도 갓 떨어진 낙엽이다. 하늘을 그을릴 듯 겹나게 밀어붙이던 단풍의 열기도 10월말을 정점으로 어느새 황토길과 그 색을 같이 한다. 그리고 그 흔적은 소롯이 땅 위에 널부러진다. 용문사의 늦가을이 그러하다.

낙엽대신 켓 불을 물들이는 이른 추위가 계절의 끝자락을 느끼게 할 즈음 용문사엔 사람도 많다. 지난해 단풍길의 풍경을 잊지 않고 모여든 사람이건, 1000년 거목의 위용을 확인하러 온 사람이건 그 산에 든 사람이면 누구든 가슴까지 물들게 마련이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소재한 용문사는 신라 신덕왕 2년(913년)에 대경대사가 지었다는 설과, 진덕여왕 3년(649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2가지 설이 전한다. 창건 당시에는 당우가 304칸에 300여 스님이 머물렀다고 하니 과히 그 위용을 짐작할만하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찰모습을 지금은 볼 수 없음이 아쉽다. 천년 고찰 용문사의 원래 모습은 순종원년(1907년)에 용문사가 의병들의 근거지로 사용되자 일본군이 불태웠다 한다.

지금의 모습은 1909년 취운 스님이 큰방을 중건한 뒤 1938년 태옥 스님이 대웅전, 어실각, 노전, 칠성각, 기념각, 요사 등을 중건하였으며, 1982년부터 지금까지 대웅전, 삼성각, 범종각, 지장전, 관음전, 요사채, 일주문, 다원 등을 새로 중건하고 불사리탑, 미륵불을 조성한 것이다.

마의태자의 설움인가, 의상대사의 불심인가

주말오후 주차장에서부터 매표소에 이르는 길엔 동네 아낙과 할머니들이 줄지어 앉아 난전을 이룬다. 산나물, 더덕, 햅쌀, 까만쌀, 어름에서 각종 농작물까지 주름진 손길로 내놓은 품새는 마치 소규모 시골장터에 온 듯한 향수를 자아낸다. 난전 앞으로 죽 이어선 은행나무 길을 낙엽 밟는 소리로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1



- 위 _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이 찾은 용문사 전경
- 아래 _ 우리나라 최고의 목조건축물 부석사 무량수전

급수에서만 산다는 산천어가 노니는 계곡을 만난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기둥을 용이 휘감아 오르고 있는 용문사 일주문에 다다르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산사에 이르는 초입이라 할 수 있다. 일주문에서부터 이 삼 십 미터 가량은 세월의 굴곡만큼이나 휘어진 노송들의 숲길이다. 숲길을 가로질러 계곡이 휘저어가고, 계곡 수변에 수북이 쌓인 낙엽은 다시 한번 늦가을의 정취를 신비롭게 만든다.

20여분을 그렇게 오르다 보면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포즈를 취하고, 카메라맨들은 땅에 닿을 듯 최대한 낮은 자세로 셔터를 눌러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1000년 세월을 이어온 고찰의 이름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이곳엔 또 하나 있다. 바로 수령 1100년의 은행나무(천년기념물 제30호)가 그것이다.



- 위 _ 부석사 안양루와 뒷편으로 보이는 무량수전
- 아래 _ 용문사 초입에 있는 용문사 일주문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세자 마의태자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던 도중에 심었다고도 하고,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놓은 것이 뿌리를 내려 성장한 것이라고도 하는 은행나무는 높이 41미터에 둘레가 11미터에 달하는 거목이다. 수많은 카메라맨들이 땅에 닿을 듯 한 포즈로 셔터를 눌러대는 이유도 다 여기에 있다. 거대한 자연목을 렌즈에 다 담으려 하니 자연히 몸을 낮출 수밖에... 1000년 이상을 지내오며 수많은 전란 속에서도 유독 살아남은 은행나무는 '천왕목'이라고도 불렸고, 조선 세종때에는 정3품 이상의 벼슬인 당상직책을 하

사 받기도 한 명목중의 명목이다. 동양최대의 명목앞이라 다소 그 영광이 가리워진 면이 없지 않으나, 대웅전 앞마당의 주목 또한 수령 600년을 자랑한다. 역사의 비밀을 고이 간직하고 있을 두 고목을 마주하고 있노라면 새삼 한 순간의 비밀도 지키지 못하는 인간사 세치 혀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없다.

따스한 봄 햇살에 얹혀 명징하던 산사의 풍경소리도 이 즈음에는 잎을 털어낸 고목의 빈 가지마냥 쓸쓸히 부딪긴다.

산사의 어린 풍경소리는 늦가을의 정취를 소롯이 담고 있다. 발길을 돌려 다시 낙엽 진 오솔길을 걷고, 계곡 길을 넘어 내려오니 서편하늘엔 벌써 석양이 걸려 있다.

목조건축물의 백미 부석사에 오르다.

또 한곳 가을산사 풍경하면 빠뜨릴 수 없는 곳, 빠뜨려서 안될 곳이 바로 영주의 부석사이다. 목조건축물의 백미로 통하는 부석사는 그 초입의 은행나무 길에서부터 무량수전에 이르기까지 한 폭의 수채화와 다름없다. 특히 10월말에서 11월초에 셋노란 은행잎들이 하늘에서 날리고 길가에 엮힌 모습은 마치 극락으로 이르는 길인 양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일주문을 지나 은행길을 거슬러 올라가면 제일먼저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천왕문이다. 천왕문에서 계단을 밟아 오르면 요사채에 이르고 그 길을 따라 다시 조금 더 오르면 고풍스런 풍경의 범종루가 앞 길을 막아선다. 범종루는 중생을 구제하는 법성의 소리를 내는 사중사물, 즉 범종, 범고, 목어, 운판을 설치해 두는 건물을 말한다. 하지만 부석사 범종루엔 범종이 없다. 그 옛날 범종은 흥선대원군 집권시 당백전을 만드느라 떼어가 버렸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부석사 범종은 지금은 따로이 만들어진 범종각에 걸려 있다. 범종루에서 다시 돌계단을 올라 안양루 밑을 지나면 드디어 부석사의 주불전인 무량수전에 이른다. 무량수전 앞마당에서 내려다보는 산사의 늦가을 풍경은 차마 말로 형용키 어렵다. 자옥한 운무까지 보태어진 산사의 늦가을 신비로움은

최고조에 달하고, 그대로 습자지에 빨려 들면 한 폭의 수묵화가 된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올라서면 극락세계가...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16년(676년)에 해동화엄종의 종조인 의상대사가 왕명에 따라 창건한 사찰이다. 따라서 화엄종의 본찰이자 의상대사 이래 그 전법 제자들이 지켜온 중요한 사찰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 절이 신라 화엄종의 도량임에도 불구하고 본전인 무량수전에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셨고, 무량수전 앞에 안양문을 세웠다. 안양(安養)이란 곧 극락(極樂)을 일컫는 것이니 결국 이 절은 땅 위에 극락세계를 옮겨 놓은 것이 되는 셈이다. 그 비경이야 극락에 이를까 만 그래도 세인의 눈에 보이는 산사의 풍경은 감탄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나 범종루에서 돌계단을 밟아 안양루 아래로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 스스히 드러나는 무량수전 자태와 무량수전 앞마당에 올라 산사를 내려다 보는 풍경은 조심스레 베일을 벗는 극락의 단편을 보는 듯한 희열이 전해온다.

부석사라 이름하게 된 것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아래의 바위와 서로 붙지 않고 떠 있어 ‘뜯돌’이라 부른 데서 연유하였다고 한다. 경내에는 신라유물인 무량수전 앞 석등(국보 제17호), 석조여래좌상(보물 제220호), 삼층석탑(보물 제249호), 당간지주(보물 제 255호) 등이 있고, 고려시대 유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조사당(국보 제19호), 소조여래좌상(국보 제45호),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 고려각판(보물 제735호), 원융국사비(도유형문화재 제127호), 삼층석탑(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등이 있다.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조사당 벽화는 목조건물에 그려진 벽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현재 유물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국보와 보물을 보유한 부석사는 우리나라 10대 명찰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 맑고 맑은 용문산 계곡

한 폭의 수묵화와 같은 부석사 입구

부석사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가 생각난다. 모든 것이 앙상한 늦가을 풍경을 담고 있지만 그래도 천년 세월의 목조건축물은 주름진 어머니 형상으로 포근하다. 늦가을 정취를 찾아 오른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수묵화 속에 그어진 한 획의 점 인양 조심스레 주위 풍광과 어울리려 하고, 돌아서 내려오는 길엔 자꾸만 힐끔힐끔 뒤돌아보게 된다. 마치 떨어지지 않는 발길로 고향의 부모님을 뵙고 나오듯이, 잠시 잠깐 마음 깊이 담았던 그 풍경을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심정에서이다. 바람이 횡 하니 불고 마지막 잎새인 양 은행 한 잎이 코앞을 스쳐 떨어진다.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다는 불경의 진리마냥 질푸른 잎으로 나서 셋노랑게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은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 아마 내년 이맘때는 더 싱싱한 잎으로 거듭나서 또 다른 풍광을 선사해 주지 않을까? 부석사의 가을은 새로운 기대를 안고 그렇게 깊어만 간다.

글·사진 _ 김효웅 | 여행작가



내성의 맥 | 영월문화원 발행

영월과 관계되는 논단, 민속, 문예, 기행문 등을 실어서 발간한 내성(奈城의 脈)은 향토지(제20집), '김삿갓의 삶과 꿈' '난고 김삿갓의 현실 인식' '홍경래란과 선천부사 김익순'에 관한 논문에서 천재 시인인 김병연과 그의 조부 김익순의 죄상을 각각 논거해 놓고 있으며, '영월 지역의 광산취락에 관한 연구'로 2003년도 강원도 향토연구논문 우수상 수상 작품 등을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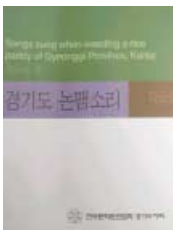
성곽 길라잡이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행

경기도 각 시·군에 산재해 있는 오십 여개의 성곽들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놓고 있는 '성곽(城郭)길라잡이' 제1권은 경기도 내의 성곽 위치와 축조연대, 규모, 관련 전투를 비롯해서 역사, 축성 방법과 구조, 성내 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특히 지형도와 성의 평면도 등 각종 사진을 첨부해 놓고 있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민속예술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행

민속예술이란 대체로 놀이, 민속춤, 가면극, 소리, 굿의 의례, 농악 등으로 경기도의 민속예술은 자락이 넓고 다양한 문화적 접변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으로 다양한 갈래를 이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각 시·군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을 지역별로 전승지 유래 및 발굴경위 구성 및 내용과 특징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다.



경기도 논맴소리 |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개발로 농경문화가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 토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경기도 여주·연천·오산·용인·의왕·의정부·이천·파주·평택시 등의 논맴소리를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각 지역의 논맴소리의 배경과 종류, 성격을 각각 설명하고 그 소리를 오선지에 옮겨 놓음으로써 원형 전승이 가능하게 되었다.



충장공양헌수대장유집 | 양평문화원 발행

병인양요(丙寅洋擾) 때 강화도를 점거한 프랑스군을 격퇴시킨 양헌수 장군의 후손에 의해 보관되어 있는 진중 병인일기와 정족산성첩전사, 비문, 하거집(荷居集) 등을 구하여 이를 국역으로 번역한 충장공양헌수대장유집(忠莊公梁憲洙大將遺集)을 발간했다. 이 책으로 병인양요 정족산성 첩전사의 연구를 위해서 양헌수의 생애와 사상 등 그의 관직생활 및 당시의 정치, 경제, 제도 등을 연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암행어사 박문수(朴文秀) 이야기 | 아우내문화원 발행

지금부터 삼백여년 전 내면의 창조적 정치를 주장하고 성사시킨 조선시대의 관리로써 용기 있는 판단과 올곧은 성품으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의 본보기로 후대의 희망과 등불이 되어 온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영조실록과 정조실록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자세히 엮어 놓았다.



당진인의 시집 | 당진문화원 발행

출향인들의 마음 속에 간직한 고향 사랑과 당진에 삶의 터전을 일구며 촘촘히 원고지를 통해 고향의 독특하고 따뜻한 아름다움이 당진을 사랑하는 소중한 마음이 원고지를 통해 고향의 따뜻한 마음으로 번져 나가기를 바란다는 발간사처럼 육십인의 시어가 잔잔한 감동으로 고향 당진을 노래하고 있다.



국역 영주시해 | 고흥문화원 발행

고흥지역의 선조들이 읊은 한시 중에서 문학성과 자료적 가치가 월등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수록한 국역 '영주시해' (瀛洲詩海)를 통해서 같은 지역에 인연을 두고 있으면서 태생적으로 소유한 공통의 감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당시의 생활풍습이나 지역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풍수로 금산을 읽는다 | 금산문화원 발행

금산의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각 마을의 특징을 찾아 그 마을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을 창출하여 사람과 자연이 서로 상생하고 나아가 부족한 곳은 보완하여 온전한 삶을 완성한다는 생태중심의 철학이 담겼다. 산(山), 물(水), 사람(人)이 어우러진 금산의 풍수이야기를 펴냄으로써 금산의 지역개발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 역할이 기대된다.



국역 고려명신전(상) | 성남문화원 발행

남공철(南公轍)의 고려명신전(高麗名臣傳)은 고려의 명신, 도학자, 충신, 효자, 열녀, 일민 등 282인의 행적을 수록하고 있어서 고려사 연구의 귀중한 사료이다. 의령남씨(宜寧南氏) 가문에서 배출한 대표적인 학자 남공철은 영·정조시대와 순조 때까지 민족문화의 화려한 중심 인물로 고려명신전의 발간은 국민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양의 금기어·길조어 | 청양문화원 발행

금기어(禁忌語)와 길조어(吉兆語)는 너무 분방하고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조상들의 조심스럽고 지혜롭던 삶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말들이다. 비록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중하고 범하지 말라는 말이 곧 금기어이다. 따라서 우리 조상들은 금기어의 충고대로 자숙하고 길조어대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살았다. 이와 같이 주고받는 말 속에 소박한 생활철학이 담겨 있으며 향토문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포곡면지 | 용인문화원 발행

용인시 포곡면은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화로 인해 전통과 현대가 혼재하는 곳이다. 위락시설인 에버랜드와 아파트 촌, 그리고 산업체들이 늘어나는 관계로 그동안 간직해 온 문화적 전통과 생활양식이 사라져 버릴 위기에 처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포곡면지(蒲谷面誌)에 담았다. 삶의 터전과 삶의 내력, 그리고 삶의 취와 삶의 틀, 삶의 내용·방식·이야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강릉의 12향현 자료집 | 강릉문화원 발행

조선왕조실록, 신증 동국여지승람,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연려실기술, 동호승람, 대동야승, 강릉명륜서원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모아 '강릉의 12향현 자료집'을 발간했다. 12향현 가운데는 벼슬을 한 분도 있고 벼슬을 멀리 한 분도 있는데 강릉 향현사(鄕賢祠)에 모셔진 12명의 위패의 주인공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지역의 문풍 진장에 앞장서 온 인물들이다.



조선시대 관작제도 | 담양문화원 발행

조선시대의 관작과 작위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관작해설과 관작에 관한 일반상식에 이르기까지 설명해 놓고 있다. 부록으로 조선의 공신과 관작 대비표 및 역대 왕조 계보 등을 싣고 있다.



경산연보 | 광명문화원 발행

경산(經山) 정원용(鄭元容) 선생은 조선 정조 7년에 태어나서 고종 10년에 91세로 영면을 하기까지 무려 70여년을 관직 생활을 한 분으로 오리(梧里) 이원익(李元翼) 선생과 함께 광명의 좌원익 우원용이라고 할만한 역사적 인물로 손꼽힌다. 그의 일대기를 상술해 놓은 것이 경산연보(經山年譜)이다.



소설 이원익 | 광명문화원 발행

조선 중기의 명재상으로 다섯 번에 걸쳐 영상에 올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서도 변변찮은 자신의 집한 채 갖기를 거부했던 청백리로 이름 나 있는 오리대감의 일대기를 기초사실에 근거하여 쓴 소설로 한 시대를 풍미한 명재상의 숨겨진 인간적 면모를 느낄 수 있다.



노원의 역사와 문화 | 노원문화원 발행

노원구의 역사적 발자취, 노원구의 집성촌 형성, 노원지역의 옛 마을 이름과 유래, 역사적인 인물과 농요 등 문화재 현황을 다양한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고 있다.



가평군 중등교육 50년사 | 가평문화원 발행

2005년도를 기준으로 가평군의 중·고등학교의 모든 자료를 집대성하여 50년사를 발간했다. 가평의 지역적인 특성과 각 중·고등학교의 변천과정과 연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각 중·고등학교 별로 졸업생 명단까지 부록으로 실고 있다.



구비전승 및 민속자료 조사집 1 | 화성문화원 발행

구비전승은 순전히 말에 의해서 창조되고, 말로 전달되고, 말로 수용되는 문화적 정보 전달체계를 뜻한다. 경기도 화성시의 민요와 설화, 수수께끼, 민간신앙, 화성무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보자에 이르기까지 소개해 놓고 있다.



과천 예문화 | 과천문화원 발행

"전통문화의 단절과 무분별하게 유입된 외래풍조로 인하여 우리는 '아버지 진지잡수 세요'가 '아빠 밥 먹어'로 바뀌고 남편을 '오빠'라고 얘기해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과천 禮문화' 발간사의 한 구절이다. 음식·언어·세시의례·다도 등 생활 속의 예절을 다루고 있는 한편 사회 저명인사들의 예절교육과 체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영화의 메카 충무로 | 서울 중구문화원 발행

충무로의 역사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꼽을 만한 문화유적들을 지니고 있는 충무로는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한국영화의 성장기에 있어서 충무로 그 자체가 곧 영화의 대명사였다. 이러한 영화의 고향 '충무로'의 어제와 오늘을 자세히 소개해 하고 있다.



국역 칠곡지리지 | 칠곡문화원 발행

삼국사기·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조선환여승람 등에서 칠곡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번역·편집하여 발간한 것이 국역 칠곡지리지(漆谷地理誌)이다. 칠곡의 역사와 문화, 정치, 경제, 사회, 풍속, 인물 등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도와 청도 사람들 | 청도문화원 발행

조선왕조실록에서 청도에 관한 자료를 발췌하여 청도의 연혁과 역대 군수에 대한 포폄(褒貶), 충신과 효자 및 청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비롯해서 선조들의 활동상을 담아 놓은 것이 '왕조실록 자료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朝鮮時代) 청도(淸道)와 청도(淸道) 사람들'이다. 그 밖에도 귀양길 오간 사람들과 청도에서 발생한 지진 등 날씨 기록들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서구의 마을유래 | 대전 서구문화원 발행

도시의 성장과 개발로 지형이 바뀌어 옛 모습이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도 찾아 볼 수 없어 그동안 간직해 온 생활양식과 문화적 전통을 담은 대전 '서구의 마을유래'를 발간하였다. 관내 17개에 달하는 행정동과 12개의 법정동에 대한 연혁과 마을 전경 사진, 전설 등을 싣고 있다.



고창의 마을유래 | 고창문화원 발행

마을은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공간으로써 공동체적인 집단이 형성된 이후 끊임없이 발달하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고창의 마을유래'에서는 관내 14개 읍 면을 대상으로 각 읍·면지도와 행정구역 일람표, 그리고 각 읍·면의 연혁 및 마을의 유래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수록해 놓고 있다.



고창문화원 40년사 | 고창문화원 발행

총론에서는 우리문화의 우수성과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제언, 문화원의 발전과정을 싣고, 제2장에서 고창의 역사와 고창의 문화를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고창문화원의 발자취를 살펴 보고 제4장 문화원의 연혁 및 조직을, 제5장에서는 주요사업 활동과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역주 신증동국여지승람 | 성환문화원 발행

한문으로 전해 오고 있는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동안 묵혀두었던 선현들의 발자취를 찾고자 작년에 누락된 천안군편과 전의현 편을 역주한 '역주 신증동국여지승람' (譯註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발간했다.



남면향토지 | 조치원문화원 발행

과거 연기현(燕岐縣)의 중심지인 남면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됨으로써 조상대로 살아 온 역사의 현장이 어떻게 변모해 나갈 것인지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남면향토지(南面鄉土誌)를 발간했다. 남면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선사시대부터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행정, 교육, 문화, 산업·경제, 성씨 인물, 그리고 문화재·유적 등 다양한 자료를 싣고 있다.



용인의 푸른 숨소리 | 용인문화원 발행

용인의 읍, 면, 동, 리의 역사적 배경과 특색 또는 이미지적 시를 엮은 책자로 '용인의 푸른 숨소리'는 매화꽃길, 연꽃길, 배꽃길, 창포길, 목화꽃길, 밤꽃길, 은행나무길, 닥나무길, 잣나무길, 소나무길, 하늘길, 낙은길, 버드나무길, 학길 등의 지명을 바탕으로 한 한편의 시집이다.

우리문화

- 발 행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 소 : 우)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홈페이지 : www.kccf.or.kr
전 화 : (02)704-2311~3
팩 스 : (02)704-2377
- 등 록 : 라36627(1984.7.12)
- 발행·편집인 : 권용태
- 편집주간 : 채강희
- 기획팀장 : 강민철
- 편집&디자인 : 컬처플러스
우편번호 : 100-013
주 소 : 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24-3
제복빌딩 303호
홈페이지 : www.cultureplus.com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 인 쇄 : 한국컴퓨터인쇄정보
주 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148-73
전 화 : (02)2275-8106
팩 스 : (02)2275-8107
정 가 : 3,000원

‘우리문화’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원고는 우편이나 팩스,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 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자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편집에 도움이 되겠습니다.(e-mail로 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스캔을 받은 후 보내주십시오)

발행처 :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편집실 : 우)100-013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24-3
제복빌딩 3층 컬처플러스
전 화 : (02)2264-9028
팩 스 : (02)2264-9021
E-mail : cultureplus@hanmail.net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합니다.

우리 문화 속의 성과 로맨스

“사랑한다면 나이를 묻지마라”(下)

(이전호에서 계속)

이같은 연하남 신랑과 연상녀 신부는 ‘부부갈등’도 심했다. 음양의 이치엔 짝꿍한 채 이부자리에 오줌만 싸는 코흘리개 ‘꼬마신랑’과, 가슴이 봉긋이 솟아오르고 물이 오를대로 다 오른 신부간의 성적인 갈등은 극기야 신부가 탄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하거나 남편을 죽이는데로 까지 몰고 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1930년 당시 한국의 형무소에 갇혀있던 여자 살인범수는 47명에 달했다고 한다. 남자 살인범은 53명. 남자를 1백으로 치면 여자는 88이다. 이는 독일의 13.5, 일본의 11, 대만의 3에 비교해 보아도 엄청난 고율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여자살인범의 60% 이상이 자신의 본 남편을 살해했다는 통계는 또 한번 우리를 놀라게 한다.

그럼 여자 살인범들의 범행 동기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한마디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통계를 밝힌 한국학의 대가 이규태씨는 상당한 부분이 나이가 어린 신랑을 둔 ‘처녀신부’들이 정욕을 참지 못해 탄 남자와 간통을 하다 끝내 ‘꼬마 신랑’을 죽인 예를 들면서 이와 반대로 나이가 매우 어려 생리적으로 발육이 안된 ‘소녀신부’들이 남편들의 무리한 섹스 요구에 참지못해 살인을 범한 경우도 많다고 분석한다.

어느 쪽이 더 컸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하튼 성적 갈등으로 빚어진 비극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나 ‘꼬마신랑’을 둔 신부는 어땠을까? 아마도 평생 쓸쓸한 밤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신랑이 어릴 때는 몰라서 그랬고 성장해서는 바람을 피워서 그랬다. 신랑이 양 어께가 떡 벌어지는 건장한 청년이 되자 배꽃처럼 곱던 신부는 이미 얼굴에 주름살이 피어오르는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른 것 같다. 성격차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봤지만 나이차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혼인 방식이 중매에서 연애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연하남 연상녀’ 커플의 심중팔구는 일방 또는 쌍방의 ‘지독한’ 연애로 얻어진 결실이다. 이들 커플중에 부모나 주위사람들이 맺어준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만큼 결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여자 등쌀에 어떻게 살아?’라며 손사래를 치던 남성들도 지금은 ‘철든 아내가 좋다’며 두 손 들어 환영한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연하남을 선택한 친구에게 ‘애랑 어떻게 사냐’라고 놀려대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능력있네’라며 부러워한다. 누군가 나이를 초월해 결혼한다면 정작 눈치를 봐야할 상대는 친구나 주위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2세이다.

“왜 아빠는 엄마 동생이야?”

“동생인데 왜 엄마한테 반말해?”

“그럼 나도 00누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물어올 초등학교 아들에게 촌철살인과 같은 화두를 던져 깨우침을 주어야 하는데 완전 무방비상태다. 그러나 자고로 사랑은 국경도 초월한다고 하지 않은가? 나이쯤이야.